

13일 Market Index			
코스피	5487.24	코스닥	1152.96
	(-96.01)		(+4.56)
금리	3.338	환율	1497.50
	(+0.067)		(+16.30)

metro 경제



어닝쇼크 수두룩... 1분기 전망도 부진

상장사 4분기 실적시즌 10곳 중 6곳 실적 기대이하 반도체 대형주 선전 두드러져 대원제약·금호석유화학 등 어닝쇼크 수준으로 부진

지난해 4분기 실적시즌이 절반 가량 진행된 가운데, 실적을 발표한 상장사 10곳 중 6곳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우려스러운 점은 올해 1분기 실적도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증권사 3곳 이상이 영업이익 추정치를 제시한 246개사 중 158개사(64%)가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컨센서스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은 88개사(36%)에 불과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반도체 대형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737억원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를 8% 웃돌았다. SK하이닉스도 영업이익 19조



중동 교민들, 군 수송기 타고 대피

14일(현지시간) 중동지역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들이 '사막의 빛' 작전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도착한 공군 수송기(KC-330)에 탑승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국방부

1696억원으로 컨센서스보다 16% 많았다.

다만 개별 기업으로 들어가면 '어닝쇼크'에 가까운 부진도 적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의 영업이익은 15억원으로 컨센서스(483억원)를 97% 밑돌며 두 번째로 하회 폭이 컸다. 연말 시장 수요 둔화 및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합성고무 부문 수익이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뒤이어 포스코홀딩스(-96%), 한화시스템(-85%), 씨앤씨인터내셔널(-82%), 현대무백스(-79%) 순으로 하회 폭이 컸다.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 속한 기업들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현대차(1조6954억원)와 기아(1조8425억원)의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각각 37%, 1% 하회했

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적자는 4549억원으로 기존 예상(영업적자 615억원)보다 적자폭이 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36%), 두산에너빌리티(-32.0%), HD현대중공업(-22%) 등도 기대치를 밑돌았다.

<2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metro 경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 엿보기

메트로신문이 오는 3월 24일(화)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을 개최합니다. 저성장 지속과 내수(소비+투자) 부진으로 국내의 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불확실성은 경제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0세시대 현실화로 확실한 자산 설계가 절실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를 주제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외 경제와 주식·부동산 시장을 전망하고,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를 엿볼 예정입니다.

- ◆ 행사명 :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1)
- ◆ 주 제 : 초고령사회와 생산적 금융 - 주식·부동산 등 자산의 재설계
- ◆ 일 시 : 3월 24일(화) 오후 2시~5시00분 (VIP 티타임 오후 1시40분~2시)
- ◆ 장 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문 의 : 100세포럼 사무국 (02)721-9818,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metro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파견 요구 아덴만 '청해부대' 투입 가능성

한·중·일·영·프랑스 압박 국회 동의 필요한 상황 정치적 이슈 부상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중국 등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 하라고 요구하면서,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가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 새로운 국내 정치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현재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소셜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인해 영향을 받는 많은 국가들은 해협을 열려 있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War Ships)'을 파견할 것"이라며 한국과 중국·일본·프랑스·영국 등 5개국에 군함 지원을 요구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의 20% 정도가 지나는 요충지로,

가장 좁은 곳이 39km에 불과하다. 이란은 이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며 통행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고, 실제 민간 선박의 피격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제 유가는 어마어마하게 치솟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해당 상황의 책임을 동맹국에게 일부 전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일단 정부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15일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조만간 공식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함 파견 요청을 받은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상호 적대 행위 중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몽둥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의 경우는 다르다. 중국과 달리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이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

코스피 발빠는 외국인... 원화값 하락 '비상'

중동사태와 경제리스크 ② 치솟는 환율

불확실성 커져 안전자산 선호 환율 55원 상승한 1479.80원 금 한돈에 107만원대 최고수준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주식 등 위험자산을 줄이고 달러로 자금을 옮기면서 원·달러 환율에도 상당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은 1479.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중동전쟁이 일어나기 전(2월 27일) 1424.50원에서 이달 13일 1479.80원으로 55원 올랐다.



◆ 달러·금 선호...원화값 하락 압력

원·달러 환율이 오른 이유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DXY)는 13일 기준 100.36을 기록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 달러의 가치가 주요 6개국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

로나, 스위스 프랑) 대비 얼마나 강세, 약세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100 이상이면 달러가 강세라는 뜻이다.

금 가격도 올랐다. 3월 중순 기준 국내 금값은 3.75g(1돈)당 살 때 107만원대를 상회하는 최고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중동 지역 긴장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환율 상승(원화값 하락)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

중동 전쟁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13일 기준 전일 대비 1.72%(96.01포인트) 하락한 5487.24에 마감했다. 이는 중동 전쟁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 2월 27일 6244.13과 비교하면 756.89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이 대통령, '3·15의거 기념식' 참석해 첫 정부 공식 사과... "희생자 유가족에 진심 사과"
- ▲'서울시장 출마' 정원오 교통공약 발표... "버스 노선망 재편·30분 통근도시 만들 것" /사진 뉴시스

- ▲윤상현 "국민의힘, 선수 탓하기 전에 운동장부터 바로 세워야"
- ▲국힘 "北 600mm 방사포 도발... 굴종적 대북정책의 결과"

-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에 김정철·부산 정이한 등 6명 공천
- ▲조국 "정부·여당, 檢 보완수사권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답해야"

‘유가·환율·보호무역’ 부담가중… 수출 중심 한국경제 ‘흔들’

유가 급등에 항공업계 수익 비상
반도체산업, 헬륨 등 공급망 위기
“전쟁 장기화 댄 교역 등 피해 확산”

국내 산업계가 유가 급등, 환율 변동성 확대에 이어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라는 ‘삼중 압박’에 직면하며 복합 위기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불확실성이 제조 원가를 압박하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가 겹치면서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축유 방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장중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과 유조선 피격 소식이 전해지며 공급 불안이 증폭된 결과다.

당장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항공업계는 비상이다. 연료비 상승분만큼 항공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지면서 4월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4월 유류할증료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지난 11일 부산 남구 신성대 부두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책정된다. 4월 적용 평균가는 배럴당 160달러(3월 약 86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로스앤젤레스(LA)의 유류할증료는 7만8600~7만9500원이지만 단순대입하면 4월 발권시 해당 노선의 편도 할증료는 20만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 단거리 노선인 일본이나 동남아 노선 역시 현재 1만~3만원대에서 5만원대 이상으로 뛴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유가 급등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도 재무적 압박을 키우고 있다. 항공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특성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석유화학 업계 역시 원료인 나프타수급에 차질을 빚으며 한화솔루션의 주요 원료 공급처인 여천NCC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도 공급 중단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수출 효자인 반도체 산업도 공급망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반도체 웨이퍼 냉각용 헬륨(카타르산 64.7%)과 식각 공정용 브롬(이스라엘산 97.5%)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장기적으로 재사용 헬륨 비중을 19%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80%를 카타르에서 수입하

고 있어 부담은 크다. SK하이닉스는 중동 전쟁 이후 현재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 당장의 생산 차질은 막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에 헬륨 소요량이 급증한 점이 최대 변수다.

헬륨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산업용 가스다. 웨이퍼 공정이 진행되는 장비 내부 ‘챔버’에서 공정이 끝난 뒤 잔여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나노미터(nm·10억 분의 1m)급의 반도체 회로를 만들어내는 반도체 공정 특성 상, 이 과정에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고순도 헬륨이 사용된다. 최대 99.9999%(6N) 순도의 헬륨이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재고는 확보했지만 전쟁 장기화 시 대체 공급처 확보를 위한 비용 상승과 물류 대란은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미국 정부가 지난 13일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를 예고해 보호무역의 파고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사가 실제 관

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현재 15% 수준인 자동차 관세가 과거 논의됐던 2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과잉 생산’을 문제 삼고 있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광호 연구위원은 “대의 불확실성 확대에 유가가 급등하며 소비자물가상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내 핵심 인프라를 직접 타격하는 양상으로 확산하면서 대중동 경제협력 대부분을 GCC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유 연구위원은 “한국의 대중동 경제협력은 대부분 GCC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GCC 산유국으로의 전선 확대가 중동과의 경제협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동안 다방면에서 협력이 이루어졌던 만큼 에너지 수급, 교역, 건설 수주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정부, 보험업권 영향 점검… “기업·선박 보장공백 최소화”

금감원, 보험업권 CFO 긴급 소집
위기대응계획 수립·이행 적정성 점검

중동 전쟁 격화로 보험업계의 선박보험·재무건전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 기업과 선박의 보장 공백을 막는 현장 대응이 시급해진 데다 유가·금리·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장기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 재무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보험사 14곳 최고재무책임자(CFO)를 긴급 소집해 중동 상황 악화가 보험업권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보험사 재무건전성 영향과 함께 중동 지역 내 한국 기업·선박의 보장 공백 최소

화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 금감원은 대규모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원수사와 해외 재보험사 간 정산 지연으로 유동성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이 보험사를 긴급 호출한 것은 이번 중동 리스크가 더 이상 유가나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9일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해상보험 익스포저는 총 1조6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선박보험이 9796억원, 적하보험이 7067억원이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42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B손해보험 3328억원, 현대해상 2843억원 순이었다.

아직 국내 선박의 직접 피격이나 보험금 접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

태가 장기화할 경우 실제 손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현장에서는 이미 보험 조건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인 페르시아만에 정박 중인 국내 선박 일부는 기존 보험을 취소하고 위험을 다시 반영한 새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위험 특약 보험료율도 통상 선박가액의 0.25% 안팎에서 최근 1~3% 수준으로 뛰여 5~10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 한 척 가치가 2억~3억달러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항해 한 번에 보험료 부담이 수백만달러로 불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국제 해상보험 시장의 긴장도도 높아

지고 있다. 런던 해상보험시장의 공동전쟁위원회(JWC)는 지난 3일 바레인, 지부티,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인근 수역까지 고위험 해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로이터는 걸프 지역 전쟁위험 보험료가 일부 구간에서 1000% 이상 급증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충격이 해상보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업권은 자산운용 구조상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보험권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투자 비중은 70.9%에 달한다. 채권 40.8%, 외화유가증권 11.4%, 수익증권 9.9%, 주식 5.1% 등으로 구성돼 있어 중동발 충격이 유가 상승, 장기금리 변동, 달러 수요 확대, 자산가격 조정으로 변질 경우 건전성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

다. 금감원이 이번 간담회에서 보수적 자산건전성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 확보를 주문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특히 해외 사모대출과 해외 부동산 등 경기민감 자산은 1차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금리·주가·환율뿐 아니라 해지율·손해율 등 보험위험까지 함께 반영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하고, 위기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필요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일시적 자금 차입 허용 등 대응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동발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보험사에는 선박보험 손해 부담, 재보험 정산 지연, 자산건전성 저하가 동시에 밀려올 수 있다는 얘기도.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별 복합위기상황분석과 자체 위기대응계획 수립·이행의 적정성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metro

범정부 ‘사막의 빛’ 작전… 국민 204명 귀국 지원

“현지 상황 주시… 안전조치 지속”

중동지역 국가들에 체류하다가 이란 전쟁으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인 7명 등 민간인 211명을 태운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5일 오후 우리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현지 체류 중인 모든 국민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군용기 활용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외교부와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한 이번 ‘사막의 빛’ 작전을 개시했다.

이번 우리 국민 귀국 지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레바논 등 4개국에 각각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을 일시에 한 곳으로 집결시켜 수송기에 태우는 전례 없는 규모와 범위로 진행됐다.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공군은 물론, 주사우디대사관, 주바레인 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레바논 대사관 등 현지 공관과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에 외교부와 함께 참여한 경찰청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원팀’으로 추진됐다. 특히 준비 단계에서 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는 비행경로에 있는 10여개국으로부터 단 하루 만에 영공 통과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외교·국방 관계자들은 실시간으로 소

통했다.

이번 작전의 성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현 외교부장관과 안규백 국방부장관도 지난주 각각 사우디 외교장관 및 국방장관과 통화해 사우디 정부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와 합참은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며 군 수송기의 항로를 추적하고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했다. 공군은 작전 준비부터 종료까지 차질 없이 임무를 수행하며 작전을 실행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군 수송기 탑승객에 대해 88만원 정도(성인 기준)를 청구할 예정이다.

/박경수 인턴기자 gws0325@



metro

“반도체업종, 실적 추정치 상승… 투자 유효”

>> 1면 ‘어닝쇼크 수두룩…’서 계속

시장 전망치를 가장 큰 폭으로 웃돈 기업은 대원제약이었다. 대원제약의 4분기 영업이익은 58억원으로 컨센서스(6억원)의 약 10배에 달했다.

엘앤에프의 영업이익은 825억원으로 컨센서스(187억원)의 4배를 웃돌아 두 번째로 상위 폭이 컸다. 녹십자도 4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컨센서스(11억원)의 4배에 달하는 실적을 냈다. CJ C GV(103.3%), 인텔리안테크(93.1%), 미래에셋증권(92.5%), CJ ENM(79.8%), 컴투스(79.0%) 등도 기대치를 웃돈 곳들이다.

증권가는 올해 1분기 실적 전망 눈높이

도 낮추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2일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제시된 146개 상장사 중 3개월 전 대비 실적 추정치가 하향된 상장사는 68곳이다. 전체 상장사의 47%가 3개월 전 대비 1분기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것이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동 사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국내 실적 추정치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특히 정유, 증권, 금융업종 등의 민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업종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코스피 대비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여전히 투자가 유효하다”며 “이밖에 조선, 방산 업종도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강달러에 원화·엔화 동반 흔들... 외환시장 공동 대응 확인

환율 급변동·무질서한 흐름 점검
시장 안정을 위한 공조 지속키로
통화스와프 등 금융협력 확대 논의
WGBI 편입·투자환경 개선도 평가



구윤철(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오후 일본 도쿄 재무성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기에 앞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환율 공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화와 엔화의 미 달러화 대비 가치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대응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양국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이 같은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일본 재무성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세계 경제상황, 양국 경제정책, 경제·금융 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환율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면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및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은 회담 이후 발표한 문서에서 "원화와 엔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는 성명을

냈다.

면담에서는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비롯해 국제 투자자와의 소통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또 일본 기관투자자의 한국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노력도 언급됐다.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금융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

했다. 차기 제11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1년 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와 가타야마 재무상은 세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

만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는 데 견해를 함께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등의 성장 분야 투자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구윤철 부총리는 면담 직후 주일 특파원과 만나 "달러가 강세이고 유로화나 엔화, 원화가 절하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구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말 기한을 앞둔 한일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의 연장 여부 관련해서는 "향후 규모 등을 일본과 협의할 것이고 일본 측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 한국과 일본은 2023년 12월 1일 100억 달

러 규모, 3년 만기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는 또 전날 도쿄에서 개최된 한국 경제 투자설명회를 언급하고 "제도를 개선해도 상대방이 모르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한국 시장의 매력을 알려 나가겠다"고 했다.

또 "1년 이내에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려 한다"라고 전했다.

한일 AI 협력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메모리 쪽이 뛰어나고 일본은 로봇 관제에 강점이 있다"며 한국, 미국, 일본이 각기 잘하는 분야에서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설명했다. 히토류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한국보다는 낮다고 전했다. 이에 일본의 공급망 다변화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통상·공급망 정책대화 신설

핵심광물·LNG 협력 확대

정례 소통창구 가동, 현안 상시 점검
교란 조짐 땀 통보·요청시 긴급회의
유사 입장국 공조 확대, 광물투자 협력
LNG 스왑 등 수급안정 공조 강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통상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 등 분야에서 정례적인 장관급 소통채널을 가동한다. 또 공급망 교란 징후 발생 시 공동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4~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안보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과 통상 협력 방안 등 산업·통상 전반에 대한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한·일 산업통상 정책대화'를 신설해 통상 협력, 경제안보, 공급망, 철강, 광물자원 등 산업·통상 현안을 정례적으로 점검하기로 합의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정례 협력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야 협력 의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한다는 취지다.

또 양국은 공급망 위기 대응과 산업 협력을 위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upply Chain Partnership Arrangement·SCPA)'을 체결했다.

SCPA는 ▲공급망 교란 징후 발견 시 상호 통보 ▲교란 발생 시 요청하면 5일 내 긴급회의 개최 ▲상호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 자제 ▲핵심 광물 공동 탐사·투자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오른쪽)이 14(현지시간)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아카자와 료세이(赤澤 亮正)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주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

로 한다.

특히 핵심 광물과 자원 분야에서 공동 탐사와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은 에너지 협력도 확대한다. 한국과 일본이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LNG 수급 안정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에너지 기업 JERA는 LNG 스왑 등을 포함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 양국은 LNG 수급 위기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조속히 LNG 스왑 등 실질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국내 금융기관 중 최고
Aa2
Moody's 국제 신용등급

자본시장의 숲을 성장시키는 한국증권금융

투자자 한 분 한 분이, 증권사 한 곳 한 곳이
모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증권금융이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본시장의 숲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의 성장파트너, 한국증권금융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 자기결정권 위한 보완 필요”

인권위, 과기부에 개선 권고
생체인식정보 수집부터 파기까지
과정 전반 법적 근거 명확히 규정
국민 대상 설명·정기점검 알려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의무화를 도입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대체 수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얼굴 영상에서 추출되는 생체인식정보는 변경이 어려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해 유출 시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생체인식정



서울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시스

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디지털 취약계층 등 생체인식정보 제공이 어렵거나 제공을 원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안면인증 외의 대체 인증 수단을 마련해야 한

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 시행 이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시행 이후에는 안면인증 기술의 안전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며 정기적인 보안 점검 결과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 안면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3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영상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신분증 도용이나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본인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등 증서와 서류 제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생체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이 생체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또 안면인증 방식이 명의자가 직접 개통 절차에 참여하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이나 법인 명의 우회 개통과 같은 유형의 대포폰 유통을 완전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범죄와 무관한 다수 이용자에게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금융거래와 공공서비스 이용, 모바일 신분확인 등 사회 전반의 필수 인프라로 기능하는 만큼 개통 과정에서의 안면인증 의무화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AI 등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빅테크, AI칩 자체개발 확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회’

올해 ASIC 차지 비중 27.8% 전망
TSMC, 수율 급증에 생산능력 부족
퀄컴·AMD 등 삼성전자와 협상 진행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칩 경쟁이 격화되면서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자체 반도체 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생산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주요 고객사들의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대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자체 개발한 AI반도체 ‘MTIA’ 시리즈의 신규 칩 4종을 공개했다. M

TIA 300·400·450·500으로 구성된 이 칩은 메타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MTIA 300은 이미 생산에 돌입했으며 나머지 3종은 추후 약 6개월 간격으로 생산해 내년까지 데이터센터에 배치할 계획이다.

구글 또한 지난 2015년 AI전용 칩인 텐서처리장치(TPU)를 공개했으며 아마존은 2018년 자체 AI칩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체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고객에게도 자체 칩을 제공하며 AI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빅테크들의 자체칩 확대는 국내 메모리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가 범용 GPU 대신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주문

형반도체(ASIC)를 늘릴수록 여기에 탑재될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정교해지고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AI서버 시장에서 ASIC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AI칩 다극화 흐름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칩 개발을 확대하면서 첨단 공정 기반 파운드리 수요가 빠르게 늘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은 TSMC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TSMC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약 70%를 기록하며 1

위를 유지했다. 다만 최근 AI칩 수요가 급증하면서 첨단 공정 생산능력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TSMC의 CC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도 지난해 AI반도체 수요 증가로 첨단 공정 생산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AI ASIC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파운드리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한다. TSMC가 그간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와 안정적인 품질로 신뢰를 쌓아왔으나 최근 팹리스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납기 준수로 꼽히는 만큼 특정 파운드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삼성전자는 2나노(nm·10억분의 1m) 공정에서 기회를 파고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SMC를 제외하면 2나노 최첨단 공정 양산이 가능한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퀄컴과 AMD 역시 TSMC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선단 공정 수주 확대’를 파운드리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화하고 AI반도체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 GPU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AI칩을 개발하려는 빅테크가 늘고있다”며 “이 과정에서 AI 반도체 설계와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공급망이 다변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metro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되고 주택연금 월 지급 늘었다

연금제도 ‘대수술’

국민연금, 보험료율 0.5%p 인상
주택연금, 주택담보로 일정액 연금
하반기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은퇴 후 소득을 책임지는 연금 제도가 바뀌고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확대했고, 주택연금은 신제도 도입으로 기존보다 보충료 부담이 줄고 수령액은 늘었다.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없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됐던 기초 연금은 축소가 논의된다.

◆ ‘국민연금’ 보장 확대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올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인상돼 오

는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 소득 대체율은 43%로 늘어난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지급액도 늘어난다.

군 복무·출산 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도 확대됐다. 올해부터 군 복무를 마치는 장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을 수 있고, 기존에는 둘째부터 인정됐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자녀마다 12개월씩 인정된다. 크레딧은 추후 평균 납입액과 총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액 산정 시 활용된다.

◆ ‘주택연금’ 지급액 늘어

주택연금은 이달 초부터 ‘2026년 주택연금 개선방안’에 따른 신제도를 도입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형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제도 도입에 따라 주택연금은 향후

지급기간과 수익 구조를 산정하는 ‘계리모형’을 조정했다. 다만 새로운 계리모형은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이달 초부터 가입한 신청자에 한해 적용된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가가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세부 제도를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해 적용된다. 기금형 도입 시 금융기관·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전문기관에 퇴직연금을 운용을 위탁할 수 있게 되며, 만기마다 상품을 재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지난달 외국인 국내주식 자금유출 135억弗

▶▶ 1면 ‘코스피 발빠는 외국인...’서 계속

‘2월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 자금 유출 규모는 135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했던 2020년 3월(110억4000만 달러)을 넘어선 수준이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해지면서 외국인 자금 이탈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이탈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차손을 우려해 주식과 채권 등 국내 자산 비중을 줄일 경우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될 경우 신흥국 시장에서 자금 유출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환율 상승은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유와 가스, 원자재 등 수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재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생산 비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하거나 급락할 경우 기업들이 원자재 구매나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격 예측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의 환리스크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경영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가장 가깝고 든든한 은행

전국 어디서나 가깝고
어떤 순간에도 믿을 수 있는 은행

전국 최다 영업점과
인정받은 신용으로
고객과 함께 합니다

시작이 다른 은행
NH농협은행

운중도를 지키는 유일한 은행?

농협은행은 어디서나 손쉽게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1,064개 영업점으로 지역 사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5대 시중은행 기준

국내외 신용평가기관 인증 초우량 은행

Aa3
MOODY'S

AAA
KR 한국기업평가
KOREA RATINGS

100% 국내 자본

100% 국내 자본

100% 국내 자본

시작이 다른 은행



▶ 더 알아보기



NH농협은행은 금융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고,
그 가치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NH농협은행

20조 추경 추진에 여야 충돌… “경제 대응” vs “현금 살포”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식화
與, 추경안 빠른 심의·의결 방침
野 “선거 앞둔 포퓰리즘 정책” 비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자, 여야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악영향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밤을 새서라도”란 표현을 쓰며 추경을 빠르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가 급등으로 당장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사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오무선 3.15유족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지원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문제의식이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

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

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가 있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16일 예정된 민주당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동 정세를 핑계 삼아 독재적 재정 폭주를 하면서 ‘현금 살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유동성이 넘치고 중동 사

태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표(票)풀리즘’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방탕한 경제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경을 둘러싼 신경전은 국회 의사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과 같은 쟁점 법안을 올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바로 상정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민주당 내 강경파를 위주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민주당, 檢개혁 법안 이견 속 이달 처리 목표 정부 고심… “청해부대 투입시 국회 변수”

구체적 구조·권한 배분 두고 내용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 내부 조정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재입법을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내용이 계속되자, 당 지도부가 조율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에는 이견이 없는 모습이지만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속도를 낼 방침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입법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쟁점은 내부 협의를 통해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논란이 계속된다면 개혁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중수청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며 16일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공소청 설치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담당한다. 당초 20일 법사위 법안심

사1소위 입법공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아직 일정 확정이 안 됐다.

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방점이 찍힌 법이 아니라 갑자기 경찰 통제에 방점이 찍힌 법이 만들어진 것 같다”며 “검사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는, 수사 전반을 다 장악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보인다”고 우려했다.

당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며 내부 조율에 나섰다. 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최근 검찰개혁에 대해 ‘현실론’을 언급하면서 지지층을 설득하는 분위기다. 거기다 최근 일각에서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까지 나오면서 당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정청래대표는 지난 12일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것 발이고 상징”이라며 “이 깃발이 찢어지

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제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란하지 않게 긴밀하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는 말씀을 국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물밑 조율’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법안 수정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의 골격을 유지하며 기술적 보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로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검찰개혁 논란이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선거로 인해 법안 처리도 늦어져, ‘개혁의 효능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르면 19일 본회의에 중수청·공소청법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럼에도 이번 3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흔들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늦어도 31 일에는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 1면 ‘트럼프 호르무즈’서 계속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데다, 군함 파견이 참전으로 비치게 되면 자칫 이란을 적으로 돌릴 수 있어 이에 대한 리스크도 감내해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와 미사일 공격 등 위험성이 있어, 작전 자체가 워낙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요구에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에 “아직 공식 요청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우리 군함이 파견된다면,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을 중심으로 해적 퇴치 및 안전 항해 지원 등 임무를 수행하는 청해부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으로 4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교대해 수행 중이다.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은 아덴만으로 한정된다. 이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더군다나 당시엔 ‘독자 작전’이었고, 이번엔 다국적군으로 작전에 임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해부대 임무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서예진 기자

국힘,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오세훈 참여해주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공천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공천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6일 서울시장 후보 추가 공천 접수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이어 17일에는 접수를 진행하고, 18일에 바로 면접을 진행해 공천 절차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반복한 후 나온 첫 조치다. 지난 13일 공천관리위원장 직을 전격 사퇴했던 이정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고 “엄치었지만 다시 공천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 당대표가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오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을 신청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였던 서울시장 후보 공천 추가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절원 결의문’이 선언에만 그쳐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북지사 후보 선출 위해 2단계 압축경선을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는 안 된다며, 당의 노선변화에 대한 지도부의 실천을 촉구한 바 있다.

공천위는 자료에서 “오 시장은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며, 서울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지도자”라고 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이재명 대통령, 與 초선의원과 만찬

원팀 강조하며 입법과제 협조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부터 이틀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을 한다. 이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벌어진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16일까지 67명의 민주당 초선 의원을 만나 다양한 국정 현안을 논의한다. 당청원팀 공조를 강조하며 입법과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보인다.

만찬에서는 중동 상황을 둘러싼 정부 대응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민생 입

법 과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등이 두루 다뤄질 전망이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당내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최근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진 데 대해 언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 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당 내용이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예진 기자

K-반도체기업, 현금 160조 쌓였다... D램·로봇 등 투자 확대

반도체 시장 호황에 현금여력 늘어 삼성전자 일평균 1000억 기술투자 SK하이닉스 생산시설 확대 주력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 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현금 여력이 크게 늘고 있다. 늘어난 자금은 생산능력 확대와 차세대 기술 투자로 이어지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합산 약 160조원 규모다. 삼성전자는 약 125조8000억원, SK하이닉스 약 34조9000억원 수준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성능 D램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메모리 부문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확보한 자금을 생산시설 확충에 대거 투입하고 있다. 사업보고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경기 이천시 SK 하이닉스 본사 모습.

/뉴시스

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약 53조 6000억원을 시설투자에 사용했다. 이 가운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투자만 46조원을 넘는다. 반도체 생산능력 확대와 첨단 공정 전환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평택 반도체 캠퍼스에서는 생산능력 확대 작업이 진행 중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확대를 위한 신규 D램 라인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 생산라인 확보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AI 메모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됐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연구개발 비용은 약 37조 7000

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하루 평균 약 1000억원이 기술 개발에 투입된 셈이다.

회사는 AI 반도체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메모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에 나선 데 이어 차세대 D램 공정 개발도 진행 중이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 사업 확대에도 나섰다. 최근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며 관련 사업을 본격화했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로봇에 결합해 차세대 로봇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

략이다. 아울러 차세대 성장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확장현실(XR)기기를 개발하며 주요 제품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공조 사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공조 기업 플렉트그룹 인수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대형 건물, 산업시설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냉각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SK하이닉스 역시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회사의 현금 및 현금

성 자산은 약 34조9000억원으로 전년(약 14조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회사는 든든한 실탄으로 생산시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총 3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약 21조6000억원은 신규 시설에 투자한다.

청주에는 약 19조원을 투입해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고성능 메모리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다. SK하이닉스는 AI 서버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HBM 후속 제품 개발과 함께 차세대 메모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연구개발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기반 연구개발 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훈 SK하이닉스 R&D 공정 담당 부사장은 최근 열린 '세미콘코리아 2026' 기조연설에서 "신제품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초미세 공정 개발이 복잡해지면서 기존 방식만으로는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어렵다"며 "AI 기반 연구개발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LG전자, 인도 최적화 공조 솔루션 선보

인도 HVAC 전시회 'ACREX' 참가 "B2B 분야 인도 국민기업으로 도약"

LG전자가 인도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과 부품 솔루션을 앞세워 '(인도)국민 브랜드' 도약에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냉난방 공조(HVAC) 전시회 'ACREX 2026'에 참가해 완제품과 핵심 부품을 아우르는 종합 공조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빠른 경제 성장으로 현지 가전제품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에서 기존 에어컨 및 공조 제품 전시존 외에 처음으로 부품 솔루션 전용 부스도 별도 마련하며 기업 간 거래(B2B) 핵심 부품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번에 공개한 컴프레서 신제품들은 불안정한 현지 전력 공급망과 혹독한 기후 특성, 강화되고 있는 현지 당국의 에너지 효율 규제 등을 고려해 ▲뛰어난 부



LG전자가 12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공조 전시회 'ACREX 2026'에서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과, 작동 중 정전으로 인한 급정지 발생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설계를 적용한 컴프레서 부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LG전자

품 내구성 ▲고효율 ▲탁월한 냉방 및 냉장 능력 등을 두루 갖췄다.

인도 현지 시장에 특화된 HVAC 솔루션도 선보였다. 혹서부터 혹한까지 다양한 인도의 기후대에서도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한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VRF) '멀티브이 5(Multi V5)'가 대표적이다. 독자 개발한 인버터 컴프레서 기반의 3단 압축기술과 냉난방 운전 시 최적의 냉

매량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기술로 에너지 효율을 높였다.

인도 LG전자 전홍주 대표는 "인도 현지 환경에 최적화된 혁신 부품 솔루션을 통해 기업 고객에게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B2B 분야에서도 국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현대차그룹, 美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 개시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본격 공략

현대자동차그룹이 자율주행 기술 격전지인 미국에서 무인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본격 개시하며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석권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Motional)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Uber)와 함께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운영 지역은 ▲라스베이거스대로 주변 지정 호텔 ▲다운타운 ▲타운스퀘어 상업지구 등이다.

모셔널과 우버는 2022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과 수백만 이용자 네트워크를 결합하며 자율주행 대중화를 가속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2022년 초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우버이츠 배달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연말 라스베이거스에서 라이드헤일링 파일럿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시범 서비스 중인 모셔널 아이오닉 5 로봇택시

/현대차그룹

모셔널의 아이오닉 5 로봇택시는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U.S.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 인증을 받은 SAE 레벨4 자율주행 차량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 단계에서는 보다 안전한 운행을 위해 차량 운영자가 운전석에 탑승한다.

모셔널은 시범 서비스 단계를 통해 이용자 피드백 등을 확보하고 서비스 고도화에 반영해 올해 말부터 완전 무인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사운드바 시장 점유율 1위

금액 기준 21.5%·수량 기준 19.7%

삼성전자가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1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오디오·비주얼 분야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장조사업체 퓨처소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5년 글로벌 사운드바 시장에서 금액 기준 21.5%, 수량 기준 19.7%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014년부터 이어온 1위 자리를 유지했다.

삼성전자 사운드바는 몰입감을 높이는

서라운드 음향과 편리한 연결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TV 스피커와 사운드 기기를 동시에 활용해 풍부한 음향을 구현하는 '큐 심포니(Q-Symphony)' 기능도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영국 IT 리뷰 매체 AV포럼은 삼성전자 프리미엄 사운드바 'HW-Q990F'를 "음악과 영화 모두를 위한 또 하나의 뛰어난 사운드바"라고 평가했다.

미국 IT 리뷰 매체 테크에어리스도 'HW-Q990F'에 대해 "뛰어난 삼성 T

V와 함께 사용할 최고의 사운드바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올해에도 프리미엄 사운드바 'HW-Q990F'의 후속 모델인 'HW-Q990H'와 와이파이(Wi-Fi) 스피커 '뮤직 스튜디오 7.5' 등 다양한 신제품을 통해 주거 공간과 청취 환경에 맞춘 오디오 경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삼성전자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몰입감 있는 음향과 공간에 어울리는 디자인, 인공지능(AI)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사운드 기기를 통해 어떤 공간에서도 최고의 사운드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르노코리아 2027년형 '아르카나' 출시

르노코리아가 고객 선호 사양을 기본 적용하며 상품성을 강화한 2027년형 '아르카나'를 선보였다. 또 3월 한 달간 아르카나 1.6GTe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3년 무이자 및 '새출발 특별 지원 혜택'도 함께 실시한다.

15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2027년형 아르카나는 연식 변경을 통해 하이브리드 E-Tech와 1.6GTe 모두 고객 선호도가 높은 '아이코닉' 단일 트림으로 구성됐다. 사양을 최적화하고 가격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고객 만족도가 높

은 1열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인기 선택 사양인 '카멜 브라운 인조 가죽 시트 패키지'의 가격을 낮춰 선택의 부담을 줄였다.

2027년형 아르카나는 17인치 다크 그레이 알로이 휠을 기본으로 적용해 세련된 이미지를 더하고 연비 효율도 높였다. 17인치 타이어를 적용한 아르카나 하이브리드 E-Tech의 공인 복합 연비는 17.4km/l이며, 1.6GTe 모델 역시 13.6km/l로 준수한 연비를 갖췄다.

가격은 하이브리드 E-Tech 3312만 9000원(친환경차 세제혜택 적용 기준), 1.6GTe 2640만 원부터 구매 가능하다.

/양성운 기자

“이동식 수납 가구로 공간 재구성… 방화 뉴타운 랜드마크”

부동산 현장 르포

‘래미안 엘라비네’ 견본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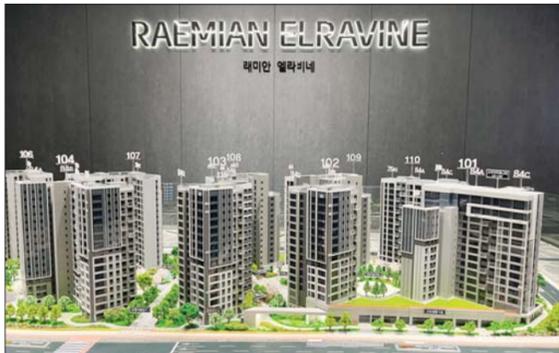
지난 13일 찾아가 ‘래미안 엘라비네’ 견본주택. 올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공급되는 래미안 아파트로, 강서구에 래미안 브랜드가 들어오는 것도 처음이다. 방화뉴타운 2·3·5·6구역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구역의 첫 신축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래미안 엘라비네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44~115㎡ 272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44㎡ 8억4800만~9억2000만원, 59㎡ 13억5600만~14억2900만원, 76㎡ 15억5500만~16억8800만원, 84㎡ 17억300만~18억4800만원 수준이다.

먼저 독특한 아파트 이름이 눈에 띈다. ‘엘라비네(Elavine)’는 스페인어 정관사 ‘EL’과 협곡을 뜻하는 ‘RAVINE’을 연결한 말이다. 협곡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디자인에 반영해 방화뉴타운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넉넉한 수납…특화 설계 눈길

견본주택에는 84㎡A 한 가지 타입의 유닛만 마련됐다. 일반분양 규모가 81가구에 가장 많은 평형이다. 유닛 내부를 둘러보니 전반적으로 드레스룸과 펜트리 등 수납 공간이 넉넉했다. 거실 쪽을 넓힌 구조도 특징이다. 84㎡ 타입의 경우 거실 폭이 약 4.8m에 달해 개방감



‘래미안 엘라비네’ 아파트 견본주택에 마련된 단지 모형도.

84㎡ 거실 폭 4.8m 개방감 강조 ‘넥스트퍼니처’ 미래형 주거기술 9호선 신방화, 5호선 송정역 인접 뉴타운 개발시 상권 살아날 것 국민평형 실분양가 20억 수준 향후 개발에 따라 가치 상승 여지

을 강조했다. 방문객은 수납공간 안쪽을 들여다보고 기본 옵션과 유상 옵션을 비교하며 상담 직원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끈 인테리어는 래미안의 대표 상품 ‘넥스트퍼니처’다. 이동식 수납가구를 활용해 방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미래형 주거 기술이다. 전시된 84㎡ 유닛은 현관과 가까운 두 개 침실에 이 옵션이 적용됐다. 기본 구조는 두 방이 분리돼 있지만 넥스트퍼니처 옵션을 선택하면 침실이 하나로 합쳐진다. 이때 움직이는 가구를 통

해 공간을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 가구 아래 숨겨진 바퀴가 있어서 특별한 장비 없이 쉽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다. 현장에서 이를 직접 본 방문객들은 “바퀴가 안 보이는데 가구가 움직이고, 방을 합쳐 쓰거나 나눌 수 있는 점이 신기하다”며 관심을 보였다.

전시된 평형 외 다른 타입은 디지털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44㎡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평면으로 공간을 효율화했다. 76㎡A2 타입은 주방에 작은 창이 난 구조로 맞통풍을 누릴 수 있다. 단지 내 위치가 신방화역에서 상대적으로 멀어서 분양가는 76㎡ A1 타입과 동일하게 책정됐다. 코너에 위치한 84㎡C 타입의 경우 거실 두 면에 창을 둔 구조다. 창이 늘어난 만큼 채광과 개방감을 자랑한다. 강서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40평대, 115㎡도 29세대 공급된다. 규모에 걸맞게 수납공간이 확장되고 거실과 마주보는 대면형 주방 옵션도 이용할 수 있다.



84㎡A 유닛의 넥스트 퍼니처 구조. 두 개의 침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할 수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 신방화역 초역세권 고급 브랜드

방문객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방화동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고급스럽고 구조도 깔끔한 것 같다”며 “동네에 이런 브랜드 단지가 들어와서 좋다”고 말했다. 송파구에 사는 50대 B씨는 “아무래도 래미안이라 관심이 가고, 궁금해서 와 봤다”며 “상담을 받아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입지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마포구에 거주하는 30대 C씨는 “지금 사는 마포랑 가깝기도 하고, 마포 위치가 괜찮은 것 같아서 찾아보게 됐다”며 “84㎡는 가격이 세서 59㎡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단지는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에서 도보 3~5분 거리로 초역세권이다. 5호선 송정역도 가까워 여의도와 광화문, 강남 접근성이 나쁘지 않다.

래미안 엘라비네 공사지 인근 ‘S부동산공인중개업소대표는 “이곳은 상권이 아직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며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면 유동인구가 늘면서 상권도 점차 살아나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 옵션 더하면 20억…방화뉴타운 첫 시험대

방화동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모텔하우스에 다녀왔다는 지인은 가격이 비싸서 가우뚱하더라”고 전했다. 고급 마감재와 발코니 확장비 등 옵션을 추가하면 국민평형 기준 실분양가는 19억원, 20억원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 가치는 높다는 설명이다. 그는 “마곡 업무지구에 대기업과 연구시설이 많아서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하다”며 “외국과 공항에 자주 가거나 직장 가까이 실수요층이 청약에 많이 넣을 것 같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공사비 상승 흐름과 브랜드 신축 단지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면 지금이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라며 “방화뉴타운 첫 분양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개발 진행에 따라 가치 상승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화뉴타운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이 일대는 4000여 가구 규모 신축 주거지로 바뀔 예정이다. 마곡지구와 맞닿은 입지까지 고려하면 서부권 주거축으로 떠오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강서에서 18억원을 넘는 분양가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래미안 엘라비네 청약이 방화뉴타운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metroseoul.co.kr



metro

신한은행, 서남권·동남권에 특화거점 구축

광주·부산에 SOL클러스터 구축 지역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지원

신한은행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맞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남권·동남권 특화 거점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한SOL클러스터’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신한은행의 지역 거점 금융지원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우선 서남권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신한SOL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서남권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인공 지능(AI) 및 융합특화산업 지원을 위한 ‘광주 AI 특화 클러스터’를 설치한다.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심사·영업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기업의 자금 수요에 맞춘 여신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동남권에서는 부산을 거점으로 조선·방산 밸류체인 지원을 위한 ‘부산 합정 MRO(Maintenance·Repair·Overhaul) 클러스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지역 거점 운영과 연계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지역사회 지원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고객상담센터 구축 및

지역인재 우선 채용 ▲광주 ‘학이제’ 신규 조성을 통한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와 기존 거점 프로그램 고도화 ▲배달앱 ‘뽕겨요’와 대학생 플랫폼 ‘헤이영캠퍼스’를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및 지방 대학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SOL클러스터는 지역 산업별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h115@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이 빌 윈터스(Bill Winters) 스탠다드차타드그룹 회장과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영 스탠다드차타드와 업무협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성장기회 도모

하나금융그룹은 영국의 글로벌 금융 그룹 스탠다드차타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및 디지털 자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금융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금융 역량을 결합,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각 사의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IB, 자금시장, 외국환 등 다양한 글로벌 금융에서의 협업 다각화

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등의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그룹과 스탠다드차타드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폭넓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금융 노하우의 파트너십은 글로벌 금융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미래 금융 영역에서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KB국민은행 ‘생산적금융 협의체’ 출범

‘생산적금융 종합 가이드’ 발간

KB국민은행은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생산적금융 협의체’를 출범하고 영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종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생산적금융 협의체는 KB금융그룹의 생산적금융 협의회와 연계해 은행 기업

금융의 생산적금융 전환을 가속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경영진 및 본부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와 영업현장 경영진으로 구성된 협의체 등 총 3개의 협의체로 나누어 운영된다.

본부 경영진 및 본부 부서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생산적금융 중심의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영업현장

경영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본부와 영업현장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생산적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영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종합 가이드’도 제작했다. 가이드에는 ▲생산적금융의 개념 ▲생산적금융 특화 상품 ▲생산적금융 관련 마케팅 포인트 ▲정책자금 및 주요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생산적금융 관련 주요 내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시민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춰, 서울의 매력을 개발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살피면 서울은 더 풍요로워지니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 속 삶의 매력을 높여갑니다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되기를
 우리 파파의 따뜻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새너와 노천이 두렵지 않게 버퍼링이 되어주세요
 역사와 미래가 조화롭게 매력적인 도시로 나아가길
 내 일상에 따라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조금씩 항상 안전하도록 지켜주세요
 내가 사는 도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아늑한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도시
 매력이 넘치는 서울이 되길
 아리진 장마하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시민이 행복한 매력 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

칩값 뛰는데 애플 폴더블 가세... 삼성, 프리미엄 전략 시험대

메모리 가격 급등에 원가 부담 확대
삼성, 갤럭시S26 가격올려 비용압박 반영
차기 Z폴드 가격전략 놓고 관심 집중
애플, 연내 폴더블 아이폰 출시 가능성



폴더블 아이폰 예상 이미지. /맥루머스 X 캡처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애플까지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준비하면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원가 압박에 새로운 경쟁 변수까지 더해지며 삼성의 선택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솔루션 매입 비용은 13조 9272억원으로 전년(10조9326억원) 대비 26.5% 증가했다. 스마트폰 핵심 부품인 AP비용이 늘어나면서 제조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메모리 가격 상승도 부담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15일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메모리 가격 트래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50% 이상 상승했고 낸드플래시 가격은

9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와 메모리 등 반도체 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핵심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스마트폰 제조원가 압박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칩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도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폴더블 아이폰 공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서는 해당 제품 가격이 2400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00달러 안팎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폴드 시리즈와 유사한 가격대다.

그간 삼성전자는 갤럭시 Z플립과 Z폴드 시리즈를 앞세워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해왔다. 다만 애플이 시장

에 진입할 경우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처럼 경쟁 환경이 변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어떤 대응 전략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회사는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 차기 폴더블폰 가격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T 매체 샘모바일은 최근 메모리 가격 상승에도 삼성전자가 차기 폴더블폰인 갤럭시 Z폴드8 가격을 전작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애플 폴더블 아이폰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될 경우 시장 경쟁력을 고려해 가격 인상 대신 동결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폴더블폰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이 향후 시장 점유율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삼성전자는 가격 전략과 함께 차세대 제품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삼성은 화

면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선보이며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폰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 제품은 약 3000달러에 달하는 높은 가격과 무게 부담 등으로 수요층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이 전체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내년 폴더블 전용 패널 출하량이 전년 대비 4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스마트폰 제조 환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애플의 폴더블 시장 진입까지 더해지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삼성전자는 가격 전략과 제품 경쟁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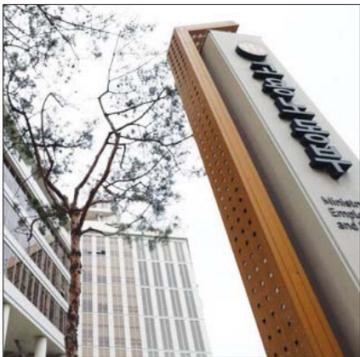
koogija_tea@metroseoul.co.kr



metro

노란봉투법에 제조업 덮친 '원청 교섭'... 조선·철강 등 긴장

포스코·현대차 등 원청에 교섭 요구
원청 사용자성 둘러싼 공방 본격화
조선업, 하청 파업 땀 납기 차질 우려
철강업, 구조조정 갈등 변수로 부상



세종 고용노동부 청사. /뉴시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제조업 전반에서 하청노조의 원청 상대 단체교섭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힌 개정 노동조합법 영향으로 조선·철강 등 하청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과 구조조정 변수까지 겹치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현대차·한화오션·HD현대중공업·한국GM 등 주요 제조업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대상에 올랐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임금 30% 인상과 원청 동일 성과급, 8시간 1공수, 최소 5일 유급휴일을

요구했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 전환과 고용 불안 해소를 요구했다. 한화오션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는 성과급 지급을, 현대모비스 자회사 유니투스와 현대아이에이치엘 노조는 자회사 매각 철회를 각각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12일 기준 집계에 따르면 248개 원청이 교섭 요구를 받았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6곳이다.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임금·근로시간·복지 등 핵심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범위에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되도록 했다. 원청은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 이내 이를 공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업계는 지난 10일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7일 공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부터 관련 법적 분쟁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하청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에서는 산업 특성상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KB증권 김준섭 연구원은 조선업은 사내하청 비중이 63.9%

로 높고 공정이 순차적으로 연결돼 있어 하청 공정 파업이 전체 납기와 지체상금(LD), 도크 가동률, 매출 인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철강업계도 하청 비중이 36.9%에 달하는 가운데, 개정 노동조합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정리해고나 공장 폐쇄 과정에서 노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강 생산은 원청과 하청이 정비·설비·운송을 분담하는 구조여서 특정 하청 지회의 파업이 전후방 공정 전체를 멈춰 세우는 병목으로 변질 수 있다. 특히 고로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적이어서 한 번 식으면 재가동에 막대한 비용이 든다.

실제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례는 법 시행 이전에도 존재했다. 한화오

션사건에서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지난 2022년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와 관련해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 의제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법 시행으로 이런 판단이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노무사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에도 차별 시정 장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정규직 사이 임금 격차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원청이 협력업체 단가를 조정하면 하청 노동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임금 문제 역시 충분히 교섭 의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에코프로, 인터배터리 부스에 3만명 몰려... 전고체 소재 '주목'

30여 잠재 고객사와 개별 미팅 진행
현대차·토요타·삼성SDI 등 경영진 방문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오른쪽)와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인터배터리2026 전시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열린 '인터배터리 2026' 전시 기간 동안 약 3만 명의 관람객이 자사 전시 부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코프로는 전시 기간 동안 30여 곳의 잠재 고객사와 개별 미팅을 진행하며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시 부스에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토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OEM)를 비롯해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CATL, 파나소닉 등 주요 배터리 셀 제조사 경영진이 방문했다.

관람객들의 관심은 전고체 배터리 소재 기술과 개발 로드맵에 집중됐다. 에코프로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과 전고체용 양극재, 리튬메탈 음극재 등을 고객사와 협

의해 개발 중이다. 고체 전해질의 경우 연 50톤 규모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객사 일정에 맞춰 내년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는 "전고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도심형 공교통(UAM)처럼 높은 에너지 밀도가 필요한 분야에서 먼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고객사와 긴밀히 협력해 소재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 기간 동안 주요 산업계 인사들의 방문도 이어졌다. 최주선 삼성SDI 사장은 지난 13일 에코프로 전시관을 찾아 전고체 소재 개발 로드맵을 살펴본 뒤 "배터리 양극소재 경쟁력은 셀 경쟁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양질의 소재 공급을 통해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소부장 中企 140곳에 168억 R&D 지원

중기부, 비수도권 82곳 선발

정부가 국가 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탠다. 유망 중소기업 140곳에 총 168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1차)' 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자 지역별 지원 규모가 할당된다. ▲경기(45개사) ▲대구·경북(17개사) ▲경남(14개사) ▲충남(9개사) 등이다.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체 지원 대상인 140곳 중 82곳(약 58%)을 비수도권 기업으로 선발한다.

지방 맞춤형 유대 지원이 가능하도록 평가 항목도 손봤다. 각 지방중소벤처

기업이 지역별 특화산업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기획할 수 있는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평가 항목의 20%로 구성했다.

아울러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상황을 감안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방산'과 '희토류' 분야를 신규 추가하는 등 기존 113개에서 137개로 소부장 지원 품목을 늘렸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 최근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업체다. 단 '소부장 강소기업 100+' 또는 '아니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 기업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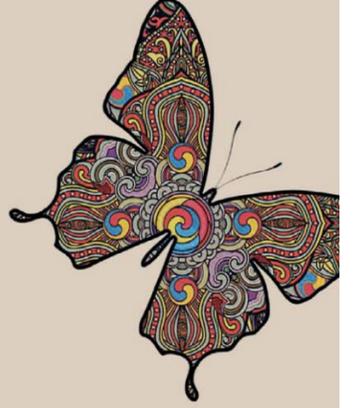
오는 16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누리집에서 사업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 IRIS에서 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bada@



제1회 K-ART 민화 공모전 & GLOBALIZE KOREAN MINHWA

THE 1st K-ART MINHWA CONTEST & GLOBALIZE KOREAN MINHWA



K-컬처의 글로벌 확산에 발맞춰 한국 전통 민화의 예술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실력 있는 민화 작가를 발굴하여 국제 무대 진출을 지원합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K-민화를 세계 미술시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제1회 K-ART 민화 공모전'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참가부문	민화부문	온라인 접수기간	2026년 2월 1일(일) ~ 2026년 4월 30일(목)
국내전시회장	인산예술의전당 화랑미술관 / 본선진출자(300명)중 지원자에 한하여 전시 진행	1차 심사기간	2026년 5월 6일(수)
해외전시	협의중 (Galerie 89 (89 Ave. Daumesnil 75012 Paris))	1차 발표	2026년 5월 11일(월) 10:00
심사방법	온라인 예선 접수 후 한-불 심사위원 동시 심사로 300점 입선작 선정 국내 전시 기간 중 실물 전시작품 평가로 시상 내역 최종 결정	국내전시	2026년 6월 20일(토) ~ 6월 26일(금) *예정
온라인 출품료	20,000원(1인 1작품 가능)	2차 심사	2026년 6월 18일(목) *예정
규격	30호 F 단일 규격 (가로 90.9cm×세로 72.7cm, 작품 총 두께 3cm 미만) *캔버스로 제작(족자 제출 및 액자 불가)	수상작 발표	2026년 6월 20일(토) 10:00
전시참여 비용	300,000원 (전시장 대관, 전시, 도록제작, 홍보물 제작, 언론홍보 비용 등) *작품 제출 및 반출료는 개인 부담	시상식	2026년 6월 26일(금) 14:00~15:00
해외전시 비용	1,000,000원 (전시장 대관, 작품배송, 통관, 전시, 철거, 현지 홍보)	파리전시	1차 50점 2026년 9월 협의중 / 2차 50점 2026년 9월 협의중
		홈페이지	minhwa.gongmojeon.com
		문의전화	02-6743-3303 *공모전 관련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출 줄고 공적책무는 늘고... 케이블TV, 정책적 해법 시급

10년 새 매출 32%, 영업이익 97% ↓
모바일·OTT 중심에 경쟁력 상실

공익 지출비용, 방발기금 등 부담
흡소핑·지역 지상파 형평성 문제도
정부에 3개월 내 해법 제시 요구

케이블TV 산업이 넷플릭스 등 온라
인동영상서비스(OTT)의 범람과 유료방
송 시장의 경쟁 심화로 벼랑 끝으로 내
몰리고 있다. 가입자가 빠르게 줄어들며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재난방
송과 지역채널 운영 등 공적 책임은 그
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적 해법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
해보면 케이블TV 업계의 매출과 수익성
이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조사
결과,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
O)의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2014년 약 2
조3000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에는 1
조5000억원으로 10년 사이 32% 넘게 증



케이블TV 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닌, 정책 공백의 실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PIXABAY

발했다.

더 심각한 것은 내실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무려 97%나 급락했다. 영업이익률은
19.3%에서 지난해 0.9% 수준으로 곤두
박질치며 사실상 손익분기점에 턱걸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입자 회선도 줄고 있다. 방송매체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TV
수상기를 이용하는 빈도는 75.5%였으나

지난해에는 70.9%까지 줄어들었다. 이
는 미디어 시청 환경이 모바일과 OTT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면서 전통적인
케이블TV의 경쟁력이 상실되었음을 보
여주는 명확한 신호다.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만, 케이
블TV 사업자가 짚어준 공적 책무의 무
게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현재 SO는
연간 약 14만 건의 지역 뉴스를 보도하
고 4만7000편 이상의 지역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5000여 건이 넘는 재난방송을
편성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
은 2022년 약 580억원에서 지난해 1200
억원 수준으로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수
익이 나지 않는 구조에서 공익을 위해 지
출해야 하는 비용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불합리한 대목으로 지적되는 것
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제도
다. 지난해 케이블TV 업계가 기록한 영
업이익은 148억원이었지만, 국가에 납
부한 방발기금은 이보다 훨씬 많은 239
억원에 달했다. 이는 기금 징수 기준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1.5%로 설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쟁 관계에 있는 흡소핑 사업자
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금을 내기 때
문에 업황이 악화되면 기금 부담도 줄어
들지만, 케이블TV는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이 있으면 기금을 무조건 내야 한
다. 지역 지상파 방송사가 공적 역할을
이유로 징수율을 0.23%까지 감경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에서도 자유
롭지 못하다.

업계는 정부에 '케이블TV 지속 정책
연구반'을 즉각 구성하고 3개월 안에 구
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만약 실질적인 규제 완화나 기금 징
수 요율 하향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
는다면, 기금 납부 전면 유예나 지역채
널 의무 운영 재검토라는 극단적인 선택
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업계의 절박한 심정
을 '준래불사춘'이라는 표현으로 요약했
다. 그는 현재의 위기가 개별 기업의 실
책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공백이 만들어
낸 구조적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희만 협회장은 "케이블TV 업계의
경영환경은 가입자급감, 광고·흡소핑 수
수료 수익 감소, 콘텐츠 비용 급증 등으
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지
금 우리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
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
기"라고 지적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통신3사, AI기술로 '광화문 K-팝 공연' 통신마비 막는다

SKT, 'A-One' 첫 실전 투입
KT, 실시간 자동 제어 'W-SDN'
LG U+, 자율네트워크 기반 대응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 일대에서 열리는 대
규모 K-팝 공연을 앞두고 통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번
공연은 티켓 관람객 2만2000명 외에도
주변에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
으로 예상되는 대형 행사다.

특히 주요도로 통제로 인해 좁은 공간
에 사람이 밀집되면서 데이터 트래픽이
평소보다 수십 배 이상 폭증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동 3사는 각자의 AI 기반 네트
워크 기술을 현장에 전면 배치하며 안정
적인 통신 품질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대 26만 명
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K-팝 공연
을 앞두고 통신 3사가 만반의 준비 태세
에 돌입했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AI 기반 네
트워크 운영 시스템 'A-One'을 이번 공
연 현장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한
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현 상태를 점검
하는 수준을 넘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
로 미래 트래픽을 예측하고, 커버리지
분석을 통해 신규 장비의 최적 위치를 제

안하는 기능을 갖췄다.

SK텔레콤은 현장을 인파 밀집도와
이용 패턴에 따라 3개 구역으로 세분화
해 맞춤형 설계를 진행했다. 관람객이
집중되는 공연장 내부와 굿즈 판매 구역
은 사진 및 영상 업로드 중심의 특화망
을 운영하고, 인파 이동이 잦은 외곽 지
역은 공연 생중계 시청을 고려한 데이터
용량을 확보했다. 또한 이동 기지국과
임시 시설을 대거 확충함과 동시에 로밍
이용객과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까지 고
려한 최적화 작업을 마쳤다.

KT는 인프라 보강과 실시간 자동 제
어 기술인 'W-SDN'을 핵심 카드로 내

세웠다.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 이동식 기
지국 6대를 배치하고 무선 기지국 79식
과 와이파이 14식을 신규 구축하며 네트
워크 용량을 대폭 늘렸다. 공연 당일에는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비
상 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현장에만 80여
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KT의 'W-SDN' 기술은 기지국
과부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1분 이내
에 자동으로 제어하는 성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정밀한 주파수 균등 분산과 기
지국 출력 제어가 가능해져 대규모 인파
속에서도 끊김 없는 통신을 지원한다. 또
한 해외 생중계 수요를 고려해 백본 네트

워크 용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함으로
써 전 세계 시청자들이 고화질 영상을 안
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자율네트워크 기반
의 사전 대응 체계를 가동하며 통신 품
질 관리에 나선다. 광화문광장 인근 주
요 지역 10여 곳에 이동 기지국과 임시
중계기를 추가 배치하고 기존 기지국에
대한 사전 최적화 작업을 완료했다.

LG유플러스의 자율네트워크 기술은
행사 중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모니터링
하며, 특정 셀에 부하가 쏠릴 경우 기지
국 출력이나 연결 유지 시간 등 운영 설
정값을 AI가 자동으로 조정해 주변 기
지국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킨다. 마곡 네
트워크 상황실과 현장 운영 인력은 실시
간으로 소통하며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
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안전,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

홍범식 LG U+ CEO

마포구 통신설비 점검현장 방문
품질·안전·보안 통신 기본기 강조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런 인식이 조직 전체의
문화로 자리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
에 돌아봤을 때 '내가 일하는 동안 안전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을 할 수 있
다면, 그것이 매출을 올렸다는 것보다
훨씬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LG유플러스는 홍범식 CEO(최고경
영자)가 서울 마포구 네트워크 점검 현
장을 방문해 작업자 안전을 강조했다
고 15일 밝혔다. MWC26 이후 첫 현장 행
보다, 회사 측은 AI 기술 경쟁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도 통신 사업의 기본기인
안전과 품질을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반
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CEO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통

신 설비 점검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과 안
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구성원들
과 의견을 나눴다. 전봇대와 건물 외벽
등 높은 곳의 통신 설비를 점검하는 버
킷 차량에 탑승해 약 5m 높이의 광점속
합체 점검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홍 CEO는 "숫자로 생각하는 5m와 실
제 차량에 탑승해 체감하는 5m는 차이
가 크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 환경
이 쉽지 않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안전사고가 줄어든 것은 현
장에서 노력해 준 구성원 덕분"이라며
"가능하다면 사고를 '0건'으로 만드는 것
이 목표"라고 밝혔다.

홍 CEO는 현장 점검 이후 직접 착용
한 안전 장비와 작업 절차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그는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품질을 유지하
면서 작업 시간을 최적화할 방법과 좁은 공



LG유플러스 홍범식 CEO(최고경영자, 오른쪽)가 서울 마포구 네트워크 점검 현장을 방문
해 통신 설비 점검 현장에서 버킷 차량에 탑
승, 5m 높이의 광점속합체를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간에서도 작업이 수월하도록 하는 방
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CEO는 취임 이후 품질·안전·보안
등 통신 사업의 기본기를 강조해 왔다.
지난해 첫 현장 경영 장소로 대전 R&D
센터를 방문해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했
으며, 최근 열린 MWC26 현장에서도 A
I 인프라와 함께 기본기 투자의 중요성
을 언급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다음 '실시간 검색' 부활... 뽀빠이는 중단

뽀빠이, 구체적 중단 이유 공개 안 해
실시간 검색, 시장판도 영향은 아직

포털 다음이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6
년 만에 재도입한 가운데 국내 생성형 인
공지능 플랫폼 기업 뽀빠이는 관련 서비스
를 중단했다.

15일 ICT 업계에 따르면 뽀빠이는 지난
9일부터 실시간 검색 키워드 순위 서비
스를 종료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4년
도입 이후 약 2년 만에 중단됐다.

뽀빠이 측은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제
공하기 위해 일부 기능을 종료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중단 이유는 공개하
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포털 다음이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다시 도입한 것과 대비되
는 행보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자
회사 에이엑스지(AXZ)는 지난 3일 실
시간 인기 검색어 서비스 '실시간 트렌

드'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다음이
실시간 검색 서비스를 재개한 것은 2020
년 2월 종료 이후 약 6년 만이다.

'실시간 트렌드'는 다음 홈페이지 검색
창 우측 상단에 배치되며 인기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여주는 방식이
다. 순위는 약 10분 단위로 갱신된다.

AXZ는 서비스 재도입 배경에 대해 이
용자들이 현재 화제가 되는 이슈를 빠르
게 파악하고 사회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시간 검색어 부활이 검색 시
장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실시간 검색 서비스 재도
입이 포털 트래픽 확대와 이용자 체류시
간 증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만 단기간에 검색 시장 구조를 바꿀 정
도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
로 보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

버블 붕괴 vs 단기 바닥... 코스피 급등락 속 엇갈린 전망

하루 평균 5% 급등락에 우려 목소리
개미 18조 매수, 외국인 13조 매도
글로벌 투자은행, 목표치 상향 조정

“예금 이자는 쥐꼬리만 한데 코스피 지수는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내 집 없는 사람이 돈 벌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미래에셋 강남역WM 입구에서 만난 주부 김모(36) 씨 얘기다. 김 씨는 “주식 초보자지만 삼성전자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사는 게 금리가 0%대인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 낫겠다 싶어 새로 증권 계좌를 열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김 씨 주변에서도 계좌를 열려는 지인들이 많다고 했다. 증권사 한 프라이빗뱅크(PB)는 “증시가 활황세를 띄자 고객 방문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갑자기 몰려들어 식사 챙겨먹기도 힘든 날이 있다”고 말했다.

넋 놓고 있다가 ‘벼락거지(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산 격차가 벌어진 사람)’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조바심이 서민·중산층과 청년층 사이에 확산하면서 ‘앵그리 머니’가 주식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증시 상승장에서 소외되면 안 된다는 ‘포모(FOMO) 증후군’도 증시로의 자금 풀림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중동 전쟁과 고유가 변수 속에서 코스피가 하루 평균 5% 수준에서 급등락하자 ‘버블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ChatGPT로 생성한 ‘코스피 변동성 확대에 의해 엇갈리는 시장의 평가’ 관련 이미지.

◆코스피, 거품의 끝자락인가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의 이달 일평균 변동률은 약 4.9%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를 17조610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3조310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국내 증시 이탈 흐름을 확대하고 있다. 중동 전쟁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 유가까지 크게 흔들리면서 개미(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수급 공방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자 ‘버블’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최근 급

등락을 거듭하는 한국 증시 흐름에 대해 “전형적인 거품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BofA는 이같은 흐름이 아시아 외환 위기와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나타났던 극단적인 시장 불안정성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BofA는 유가 급등락이 발생하기 이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코스피 지수는 주요 자산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거품 현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극도로 거품이 심한 금을 비롯해 브렌트유,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 은보다도 코스피의 거품 현상이 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영화 ‘빅 쇼트’의 마이클 버리도 가세했다. 그는 최근 코스피 변동성에 대해

“기관들이 코스피를 데이트레이딩 한다는 것은 목시록의 네 기사 중 하나가 나타난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 코스피가 열여덟 개월 저점은 488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증권사 영업부 연구원은 “80을 넘어섰던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VKOSPI)는 60까지 안정화됐지만 과거 20년 평균(20.2)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코스피의 최대치 대비 하락 폭은 평균 22.5%이며, 이를 적용한 코스피는 4885”라고 분석했다.

◆코스피, 달리는 말

대다수 전문가들은 ‘장밋빛’ 전망을 외친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6400에서 7000으로 상향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정은 기술적 조정 과정으로, 박스권 이후 반등해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지정학적 위기 사례 분석 시 충격 이후 3~12개월 내에 지수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내 기업의 이익 성장을 전망치도 기존 120%에서 130%로 올려잡았다.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 상향 조정이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 이유에서다. 또 최근 주가 조정으로 12개월 선형 주가 수익비율(PER)은 8.8배까지 낮아져 자기자본이익률(ROE)이 2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

가수준) 매력이크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도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평균 6500으로, 강세장의 경우 75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JP모건은 코스피 기본 시나리오 목표치를 6000으로, 강세장 시나리오의 경우 75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티그룹은 최대 7000, 노무라를 최고치인 8000을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는 보고서에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이 계속해서 시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 확대 흐름이 당분간 둔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정보기술(IT) 섹터의 추가 상승 여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또 원화 강세와 내수 회복 등 거시경제 환경 개선, 국내 유동성 유입, 자본시장·지배구조 개혁 진전 등을 호재로 거론했다.

다만 중동사태로 치솟은 유가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황산해 LS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상승하면 이후 경제와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례가 많다”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135달러에 도달하면 전년 대비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유가 급등의 파급 효과가 시차를 두고 소비 위축과 기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며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돈 몰린 액티브 ETF, 코스닥 새바람 될까

삼성 운용·타임폴리오, 자금 1.2조 모여
패시브 ETF보다 낮은 수익률 한계

코스닥 개별 종목을 발굴해 ‘바구니’에 담은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에 몰린 돈이 풀리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코스닥 지수만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일변도였던 코스닥 투자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운용 역량에 따라 투자 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패시브 ETF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한계는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동시 상장한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KoAct 코스닥액티브’와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TIME 코스닥액티브’는

상장 일주일도 안 돼 1조2000억원이 넘는 개인 자금을 끌어모았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 상품 1, 2위가 ‘KoAct 코스닥액티브’와 ‘TIME 코스닥액티브’였다. 각각 8188억원, 3812억원 규모의 압도적인 순매수세가 몰렸다.

시장에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삼천석’ (코스닥 3000) 달성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본시장 선진화를 강조했고, 공약이었던 ‘오천피’ (코스피 5000)를 조기에 달성했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시키고, 연기금의 투자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등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도 속도를 내

고 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기존 소외됐던 코스닥 중소형주의 신규 발견 및 투자자 관심 확대에 의해 상위 150 종목에 집중됐던 정부 정책의 수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ETF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코스닥 중소형주에 새로운 수급 유입 경로가 생긴다는 점에서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ETF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증폭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운용사들도 추가 상품을 선보일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오는 17일에는 한화자산운용도 코스



ChatGPT로 생성한 ‘코스닥 액티브 ETF’ 이미지

닥 액티브 ETF 시장에 뛰어들다. ‘PL US 코스닥150 액티브’는 기존 대부분 코스닥 ETF와 마찬가지로 코스닥150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7일 국내 바이오기업에 투자하는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를 출시할 예정이다.

강현기 DB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액티브 ETF의 영향으로 시장에서 종목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 Q&A

금감원·한은 기후 리스크 관리 점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상청과 협력해 금융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추진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탄소 감축 정책이 금융회사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감원과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기상청과 함께 기후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해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계획입니다. 시나리오는 향후 5년 내 이상기후 심화와 탄소 감축 정책 강화 등을 가정해 자연재해 피해 규모, 국내총생산 등 주요 경제·금융 변수 변화를 반영하게 됩니다.

금융회사들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 규모와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 손실 가능성과 보험 손해를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금감원과 한은 역시 별도로 손실 규모를 분석한 뒤 금융회사 결과를 비교해 기후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는 금융회사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후 관련 금융 리스크는 크게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용·시장·보험 등 금융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국내 환경에 맞는 기후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금융회사의 기후 리스크 관리 능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증권사 5곳, 1분기 영업이익 전망 3조 ‘장밋빛’

증시 활황·단타 매매 증가

증시 호황을 타고 대형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에도 장밋빛 실적 전망을 예고한다. 증시가 가파르게 성장하며 주식 투자자가 늘어남에 따라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인 거래 수수료 또한 크게 늘었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한국금융투자·삼성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대형 증권사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조27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3개월 이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실적 추정치를 토대로 집계된 액수다.

매출액은 4조1591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3122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은 65.92% 늘어나고 매출액은 46.62%, 당기순이익은 64.02% 각각 증가한 규모다.

증권사별로 미래에셋증권의 올해 1

분기 영업이익은 9782억원으로 전년 동기과 비교해 182.56%, 한국금융지주는 7059억원으로 33.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삼성증권은 4189억원으로 25.22%, NH투자증권은 4272억원으로 47.82%, 키움증권은 4977억원으로 52.90%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형사 호실적의 배경에는 증시 활황과 단타 매매가 늘어난데 따른 리테일 부문 성장세가 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이후 지난 13일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

래대금은 45조2970억원, 일평균 거래량은 21억 주다. 지난 4일에는 거래대금이 79조4700억원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18조3630억원, 일평균 거래량 13억 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호실적에 증권사 주가도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2만 원대 초·중반이던 미래에셋증권 주가는 약 두 달 만에 197% 이상 급등해 6만9500원을 기록중이다. 시가총액 순위는 50위권 밖에서 18위로 수직 상승했다. 미래에셋증권의 이례적인 폭등 배경에는 탄탄한 글로벌 포트폴리오가 자리 잡고 있다. /신하은 기자

서류제출부터 계약까지 디지털화... 농업인·국민 편의 향상

농어촌공, 농지임대수탁사업 전 과정 디지털화로 편의 제고
고령 농업인 위한 디지털 창구 농업경영체 정보변경도 편리



농지은행 디지털 창구의 모습.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국민이 보다 쉽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어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주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농어촌공사는 2024년부터 서류제출, 계약체결, 경영체정보 변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업인과 국민의 이용 편의 제고에 힘쓰고 있다.

우선 '공공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서류제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은 뒤 공사에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서류

발급 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 인증만으로 필수서류 8종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필수서류 8종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대장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서비스 제공 이후 지난해까지 3만여 명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했다. 서류 발급 비용은 물론 이동시간 역시 크게 줄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계약도 간편하게 체결할 수 있게 했다. '디지털 계약' 도입 이전에는 고객이

공사를 직접 찾아 여러 차례 서명과 날인을 해야 했다. 이제 컴퓨터나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또 디지털 환경이 낯선 고령 농업인을 위해 디지털 창구(데블릿)를 마련하고 서명한 번으로 계약을 마칠 수 있게 했다. 15일 기준 14만2000여 건의 계약이 디지털 계약과 디지털 창구를 통해 체결됐다.

아울러 농지임대차 계약 이후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도 용이해졌다. 그동안 공사에서 임대차계약을 마친 농업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야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수정할 수 있었다. 농업경영체 정보란 농업인 등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공익직불,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등 농업 관련 용자·보조금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임대차 계약데이터를 연계했다. 이로써 농업인이 품질관리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한 통으로 경영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공사에서 계약을 마친 뒤 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이동해야 했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도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공사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편의함은 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농지임대수탁뿐만 아니라, 농지은행 전반에서 농업인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디지털 혁신과 더불어 사업 전반에서도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부터 농업인 소유 농지에 대한 임대수탁 수수료를 전면 폐지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metro

농협, 학교급식 납품 김치 안전성 강화

농협김치 가공공장 12개소 대상 '신학기 농협김치 안전성 집중점검'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등 분석



농협이 농협김치 가공공장 12개소 대상으로 '신학기 농협김치 안전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농협중앙회

농협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농협김치의 품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학기 농협김치 안전성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5일 농협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전국 농협김치 가공공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포기김치와 열무김치 등 대표 품목을 수거해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대장균 등 식품 안전과 직결된 주요 항목을 집중 분석한다.

특히 김치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사람이 직접 느끼는 품질에서부터 효모 발생

여부까지를 면밀히 분석해, 농협김치의 전반적인 품질 수준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농협경제지주는 고춧가루, 멸치액젓 등 원·부재료와 김치 제품에 대해 연 3회 이상 안전성 점검을 실시해 왔다. 점검 결과에 따라 즉각적으로 제조 공정을 개선하고, 재검증을 진행하는 등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정룡 농협식품연구소장은 "농협은 선제적인 품질 점검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리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협김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韓·日 협력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

가스공-JERA, LNG 수급 협약

한국가스공사가 JERA와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한·일 협력을 강화한다.

가스공사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최대 LNG 수입사인 JERA와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Operation Cooperation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JERA는 도쿄전력과 주부전력이 각각 50%씩 출자해 2015년 설립한 회사로 일본 최대 LNG 수입 기업이다. 일본 전체 전력 공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

양사는 세계 1~2위 수준의 LNG 구매자로,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고

용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LNG 수급 관리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양측은 앞서 2023년 LNG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일본에서 열린 '2025 LNG 생산자-구매자 컨퍼런스(PCC)'를 계기로 LNG 물량 교환(스왑) 사업도 추진해 실제 협력 사례를 만든 바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고조되는 지정학적 갈등과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JERA와 연내 카고 교환 추진 예정 등 국가 간 공조를 포함한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천연가스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韓-인도, CEPA 개선협상 재개... 시장개방 확대 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인도서 통상장관 회담 열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13일(현지시간) 오후 인도 델리에서 피유쉬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한국과 인도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재개하고 협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양국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인도에서 피유쉬 고얄 상공부 장관과 한·인도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CEPA 개선협상 가속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도는 세계 최대 인구(약 14억5000만 명)를 보유한 데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세계 주요 성장 시장이다. 한국과 인도 간 교역 규모도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257억달러로 인도는 한국의 8위 수출국이다. 이는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171억 달러) 대비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다만 최근 인도가 영국·오만·뉴질랜드(2025년)에 이어 올해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과 잇따라 높은 수준의 자유 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CEPA 자유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 본부장은 회담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CEPA 개선협상 논의를 조속히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오는 3월 26일~29일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과 함께 WTO 개혁 방향,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법체계 편입 문제 등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여 본부장은 방인 기간 현지 진출 한국 기업 간담회도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인도 정부 싱크탱크인 니티 아요그(NITI Aayog)와의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건설·별목업, 이달까지 고용·산재보험 신고”

근로복지공, 법정 신고기한 내 토탈 서비스 이용 시 보험료 경감

용하면 보수총액과 예상 보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3월 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별목업 사업장 대상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확정보험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실제 보수총액 기준으로 정산하는 절차이며, 개산보험료는 올해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사업주는 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내 보험료 계산기를 활

용하면 보수총액과 예상 보험료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휴대전화로 보험료 신고서를 촬영해 문자로 전송하는 MO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 모바일 앱 'TOUCH! 산재고용'을 통해 사진 제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특히 법정 신고기한 내 토탈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커피·베이글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반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인 '두루누리' 지원도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 NOL 티켓 평점 9.9 공연 만족도 100%! | 대학로 NO.1 여성전용 섹시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쇼

2025.11.28 ~ OPEN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본 적 없던 섹시 코미디

헝키쇼



관객 참여로 더 큰 웃음!

입구는 있어도 출구는 없다!

매번 다른 조합 매일 다른 캐릭터!

나이 상관 없이 하나 될 ㅋㅋ

<헝키쇼 NOL TICKET 리얼 후기>

NOL티켓 바로가기

도파민 팡팡 스트레스 타파!!

soa***님 ★★★★★

스트레스 너무 만병이라 탈주해서 간 공연. 너무 재밌어서 눈을 날정도로 웃고 잘생기고 섹시한 남자 6명이 눈호강 귀호강 시켜주는 잊지 못할 공연이었어요!! 매 공연마다 캐릭터가 바뀌는 것도 재미!! 한번만 볼 수 없는 공연이에요!!

저도 모르게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있더라고요

a10***님 ★★★★★

사실 요즘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내내 활짝 웃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헝키쇼 덕분에 공연을 보는 그 순간에는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관객이 장면을 완성하는 참여형 쇼!

ins***님 ★★★★★

공연 끝나고 나올 땐 우울한 마음이 어디 갔는지 썩 사라져 있더라고요. 진짜 엄청 웃고 나왔습니다^^ 이 공연의 가장 큰 장점은 n회차 관람해도 n번째로 새롭다는 점. 배우분들이 매일 바뀌기도 하고, 같은 배우여도 표현이나 애드립이 달라서 여러 번 본 저도 매번 새롭게 즐기게 돼요.



카메라를 켜 위 큐알코드를 스캔해보세요!

경북도, ‘中 연휴·여름방학’ 노린다… 관광상품 집중 홍보

상하이서 ‘트립닷컴 그룹’과 맞손
벚꽃명소 등으로 경북 매력 알려
선전서 ‘K-관광로드쇼’ 참가도



경북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중국 주요 여행플랫폼 기업과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하고, '2026 K-관광로드쇼 in 선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KTO)와 함께 경북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다.

경북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중국 주요 여행플랫폼 기업과 공동 마케팅 협약을 체결하고, '2026 K-관광로드쇼 in 선전'에 참가해 한국관광공사(KTO)와 함께 경북 관광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번 중국 방문은 중국 관광시장 회복세와 단체관광객 무비자 정책 시행에 맞춰 중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관광 마케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경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국제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 현지 관광시장 공략에 나서며 경북 관광의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3월 11일 상하이에서 글로벌 온라인 여행플랫폼 기업인 '트립닷컴 그룹(Trip.com Group)'과 경북 관

광상품 홍보와 판매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5월 중국 노동절 연휴와 여름 방학 시즌을 겨냥해 중국 관광객 유치 확대에 나선다. 글로벌 온라인 여행기업 트립닷컴 그룹과 협력해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홍보 콘텐츠로는 ▲경북 봄철

여행과 벚꽃 명소 ▲경주·안동 등 전통 역사문화 관광지 ▲포항 등 현대적 도시 랜드마크 ▲경북 음식문화와 만들기 체험 ▲지역별 축제·이벤트 등이 소개된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미식, 역사, 드라마 촬영지 등 다양한 테마의 경북 여행 후기를 확산해 중국 현지 관광객에게 경북 관광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중국 잠재 여행객의 관심을 실제 경북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글로벌 온라인 판매망과 연계한 홍보와 관광상품 판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어 3월 12일 선전에서 열린 '2026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현지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북 관광 홍보 설명회와 B2B 상담회를 진행했다. 선전은 중국 광둥성의 핵심 경제도시이자 2026년 APEC 정상회의 개최지다.

설명회에서는 불국사·석굴암, 안동 하회마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비롯해 역사문화 관광지와 드라마 촬영지, 지역 미식과 축제 콘텐츠 등을 중심으로 경북 관광의 매력을 소개했다. 또한 대구·김해 국제공항을 통한 접근성과 관광 인프라, 체류형 관광 콘텐츠 등 경북 관광의 경쟁력도 함께 홍보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해남군

오는 28일 '달마고도 걷기 행사'

한반도 첫 봄의 시작, 땅끝 해남의 명품길 기길 '달마고도' 걷기 행사가 28~29일 열린다.

송지면 달마산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땅끝해남 달마고도 힐링걷기'는 '걷는 순간이 곧 힐링'이라는 테마로 걷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이 달마고도 천혜의 자연 속에서 걸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28일에는 세계 최초로 8000m급 산악 16좌를 완등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다. 코스 중간중간 대화의 시간을 운영해 명사의 경험담과 삶의 철학을 나누며 걷는 즐거움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교육청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

경북교육청은 교육 공공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과 데이터 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제8회 교육 공공데이터 AI 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다양한 AI 기술을 교육 현안 해결에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고 미래형 데이터·AI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북=김준한 기자

BFC-KMI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열려

부산국제금융진흥원(BFC)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함께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오는 24일 KMI 본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해양 기업과 해양 산업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앞서 'K-해양금융 혁신 포럼' 출범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포럼은 초청 강연 세션과 종합 토론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행사 영상은 녹화 후 공유될 예정이다.

/부산=이도석 기자

진주시,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조성

가산일반산업단지 하반기 개소 목표
KAI회전의 비행센터와 연계
전 주기 지원체계 갖출 전망



진주시 회전의비행센터.

경남 진주시는 이란성만 가산일반산업단지에 올해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를 조성중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AV 실증센터'는 정부의 상용화 정책에 발맞춰 미래 유망산업인 AAV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조성중인 핵심 인프라로 인접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회전의 비행센터와 연계해 기체 및 부품의 시험·검증부터 비행시험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갖출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험 장소 이동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개발 기간의 단축과 비용 절감 등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기체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업들의 AAV 사업 추진이 본격화하면 실증센터는 기체 개발과 실증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KAI는 AAV 상용기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인 ㈜엔젤릭스도 대학 및 연관 기업들과 협력해 경남형 AAV 시제기를 개발하고 있는 등 실증센터 활용 수요도 일정 수준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피끝마을”서 단종 역사 둘러보세요”

영화 '왕사남' 1000만 흥행에
영주시 역사·관광 코스로 급부상

1000만 관객을 넘어선 영화 '왕과사'는 남자'가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단종과 금성대군 이야기를 가득 품은 경북 영주시가 역사·관광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영주에는 영화 '왕과사'는 남자'에 등장하는 금성대군과 단종 복위 관련 역사가 곳곳에 가득하다.

영주 안정면 동촌1리는 '피끝마을'로 불린다. 1457년 단종 복위 거사가 실패한 뒤 정족지변으로 알려진 사건에서 순흥도호부(현재 영주) 백성들이 대량 학살당했다.

죽임을 당한 백성들의 피가 죽계천을 따라 10리쯤 흐르다 멈춘 곳이 동촌1리였다. '피가 끝난 곳'이라고 '피끝'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전해진다.

피끝마을을 지나 걷다보면 금성대군 혈석을 모셨던 죽동 성황당이 있다. 이어 순흥의 흥망성쇠를 곳곳이 지켜온 봉서루(鳳栖樓), 단종복위 사건으로 말미암아 화를 입은 순흥 안씨들의 성소(聖所)인 대산단소(臺山壇所)가 나타난다.

읍내리 고려시대 천년우물 사헌정(四賢井), 한국 최초 사액서원 소수서원을 비롯해 금성대군 신단도 둘러볼 수 있다.

시는 피끝마을을 시작으로 금성대군 신단을 잇는 약 7km 규모 둘레길을 '단종애사대군길' 코스로 구성해 관광객들에게 추천한다. 이 길은 단순히 유적을 둘러보는 것을 넘어 금성대군과 순흥 지역의 비극과 연대, 희생과 기억의 복원이라는 서사를 한 걸음씩 따라가며 체험할 수 있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국립창원대, 경남도립거창대·남해대 통합

4개 캠퍼스 체제 갖춰

국립창원대학교가 경남도립거창대학·남해대학을 흡수 통합해 창원·거창·남해·사천을 아우르는 4개 캠퍼스 체제를 갖췄다.

국립창원대는 13일 대학본부 인승홀에서 '통합대학 출범식'을 열고 새 출발을 알렸다. 지난해 5월 교육부 승인 이후 공식 통합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교육부 장관과 경남도지사, 국회의원, 경남도의회 의장, 경남교육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교육부·국립창원대·경상남도 3자 간 '통합대학 이행

협약' 체결이었다. 국가 고등교육 정책과 경남도의 발전 전략을 대학의 'DNA+' 혁신 비전과 결합해 지역 성장을 이끌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출범식에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민원 국립창원대 총장 등은 창원 LG전자 스마트파크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국 지역 대학 최초로 국립창원대 내에 설립되는 LG전자 HVAC 연구센터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수요 기반 인재 양성 및 공동 연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해당 연구센터를 2027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경남=이도석 기자 metrobusan@

포항시, 지역 中企 현장중심 기술 지원

'지역 中企 애로기술 지원사업'
연구개발 등에 최대 3000만원

포항시와 포항상공회의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은 지역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지역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포항시와 포항상의, RIST는 1998년 9월 중소기업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한 이후 민·산·관 기술협력위원회를 공동 운영하며 현재까지 988개 기업 2560건의 애로기술을 발굴해 지원해 왔다.

이번 사업은 생산 공정 개선과 품질 향상, 신제품 개발, 공정 자동화 등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매칭해 현장 중심의 기

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분야는 연구개발과 기술자문, 시험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개발과 기술자문은 건당 총사업비 3000만원 내외로 지원되며, 시험분석은 기업당 분석 이용료 합산액 300만원 이하를 무상 지원하고 300만~500만원 구간은 50%를 지원한다. 기술지도는 기업당 이용료 합산액 100만원 이하를 무상 지원하며 100만~300만원 구간은 50%를 지원한다.

분야별 접수 기한은 서로 다르다. 연구개발 분야는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시험분석과 기술자문 분야는 기업 편의를 고려해 연중 수시 접수가 가능하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상법개정 후 첫 주총... 주주환원·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유통업계, 정기주총 시즌 돌입
이마트·롯데쇼핑 자사주 소각 추진
신세계 배당 예측 가능성 높아
GS리테일·BGF리테일 정관 손질
현대백·현대홈쇼핑 전자주총 도입

유통업계 상장사들이 다음 주부터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자사주 소각, 배당 제도 정비,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이른바 '주주 친화' 정책이 올해 주총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주요 유통 상장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이달 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오는 19일 GS리테일과 롯데하이마트를 시작으로 20일 롯데쇼핑, 24일 신세계, 26일에는 이마트,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BGF리테일, 한화갤러리아 등이 차례로 주총을 열어 주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총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달 6일부터 시행된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 주총이라는 점



유통업계 상장사들이 정기 주주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주주친화 정책이 올해 핵심 의제로 부상한 모습이다. /Gemini_Generated_Image

에서 의미가 크다. 시장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제도 변화가 실제 안건에 반영될지 주목하고 있다.

자사주 소각 관련 안건을 상정한 곳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이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없애 발행 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가치 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주주환

원 정책으로 평가된다.

롯데쇼핑은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정관 변경안을 주총에 올렸다. 이마트는 신세계푸드와의 주식 포괄적 교환 과정에서 보유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신세계 역시 배당 기준일을 조정해 투자자가 배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당 예측 가

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 선임 방식과 관련한 제도 변화도 주총 안건에 포함됐다.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특정 후보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이 잇따라 상정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선임할 이사 수만큼의 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액주주도 이사회 구성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로 평가된다.

BGF리테일, 롯데쇼핑, GS리테일, 현대백화점, 이마트, 신세계 등은 기존 정관에 포함돼 있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주총에 올렸다. 그동안 다수 기업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권한 강화와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주주총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현대홈쇼핑, GS리테일, 현대백화점 등은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도 참여할 수 있어 주주 참여 확대와 권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 개정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유통업계 역시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올해 주총 안건 전반에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통기업들도 주주 가치 제고와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두쫘꾸' 지고 '버터떡' 왔다... 디저트 유행도 초단기

SNS 타고 신메뉴 확산
카페·프랜차이즈 출시 잇따라
빠른 교체 주기에 자영업자 부담

"오늘 오전에 팔릴 버터떡은 다 팔리고 없어요. 만들어 놓으면 배달 물량으로 다 빠져버려서 오후에 다시 구워져 나옵니다."

'버터떡 판매' 포스터를 보고 들어간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매장 진열대에는 기대하던 버터떡 대신 'Sold Out'이 붙어있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오픈런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던 '두바이 쫘꾸 쿠키'는 바로 옆에 놓여 있었지만, 찾는 고객은 없었다.

SNS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저트 '버터떡'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최근까지 열풍을 일으켰던 두쫘꾸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습이다. 디저트 유행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면서 몇 주 만에 트렌드가



인스타그램 '버터떡' 검색 페이지 캡처.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버터떡은 중국 상하이 전통 디저트 '황요넵가오'를 변형한 간식으로 알려져 있다. 찹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을

섞은 반죽에 버터와 우유, 설탕, 계란 등을 넣어 오븐에 구워 만든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쫘득한 식감이 특징으로 모찌와 버터 케이크의 중간 형태에 가까운 디저트다.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얻은 뒤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조 과정 영상과 카페 방문 인증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관심이 빠르게 높아졌다.

이에 개인 카페들은 발 빠르게 메뉴 전환에 나서고 있다. 두쫘꾸를 대신해 버터떡을 주력 디저트로 내놓는 매장이 늘고 있는 것.

카페 자영업자 A (35)씨는 "두쫘꾸 유행 때는 재료(피스타치오, 카다이프)도 비싸고 만드는 데 손이 많이 가서 판매를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버터떡은 오히려 재료 확보가 쉽고 제조 과정도 단순해 바로 디저트 라

인에 추가했다"며 "SNS에서 어떤 디저트가 유행하는지 잠깐 놓치면 막차를 타기 일쑤니까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도 관련 소비 증가가 확인된다. 이마트에 따르면 버터떡이 SNS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한 지난달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의 버터 판매량은 전월 대비 약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타피오카 전분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6%, 찹쌀가루 판매량은 115% 늘었다. 버터 판매량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체도 관련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파리크라상 법인의 베이커리 브랜드 패션파이브는 최근 프랑스 프리미엄 버터인 에쉬레 버터를 사용한 '버터쫘꾸 떡'을 선보였다. 가격은 5개입 기준 9600원이다. /신원선 기자

쿠팡, 전국 11개 산지서 딸기 3000톤 매입

인구감소지역 판로 확대

쿠팡이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전국 주요 딸기 농가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000톤 규모의 딸기 매입을 추진한다.

쿠팡은 딸기 시즌인 오는 5월까지 약 3000톤의 딸기를 주요 산지에서 매입할 전망이다. 지난 11월부터 매입을 시작했다. 직전딸기철(2024년 11월~2025년 5월)의 매입 규모인 2510여톤과 비교해 20%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2023~2024년 시즌 딸기 매입량이 1570톤인 점을 감안하면 2년 만에 약 2배 늘어난 결과다. 쿠팡은 지난 11월부터 올 2월까지 딸기 매입 규모가 1500여톤에 이른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쿠팡이 딸기 매입 규모가 늘어난 이유는 새벽배송·산지직송을 이용하는 전국 고객이 늘어나면서, 딸기 농가 활성화에 나선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농가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2년 전 쿠팡의 딸기 매입 산지는 충남 논산·경남 진주 등 5곳이었다. 올해 매입지는 총 11개 지역으로 경상도(산청·하동·진주·밀양·고령·의성), 전라도(남원·삼례·담양), 충청도(논산·홍성) 등이다. 이 가운데 8곳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이다. 쿠팡은 지난 4월 경북 고령군, 11월 충남 논산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딸기의 온라인 판로 확대에 나섰다. /신원선 기자

GS25, '신선식품 사전예약' 흥행몰이

2030세대 호응 속 누적 주문 2만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 가올해 '우리동네GS' 앱을 통해 선보인 신선식품 사전예약 서비스 '신선한 예약' 기획전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신선한 예약'은 일반 편의점 매장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제철 상품 등 다양한 신선식품을 앱 사전예약 방식으로 판매하는 행사다. '우리동네GS' 앱에서 상품을 결제하고 수령을 희망하는 GS25 점포를 선택해 찾아가면 된다.

신선한 예약 기획전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월평균 2회씩 총 4차례 진행됐으며 누적 주문 2만건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우리동네GS' 앱에서



GS25는 매월 '우리동네GS' 앱에서 신선식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GS25

발생한 신선식품 매출은 전년 대비 540% 신장했다. 판매 우수 상품은 ▲한돈 삼겹살 ▲향공직송연어필렛 ▲5無훈제오슬라이스 ▲한돈목살 ▲캘리포니아 딸감 순으로 나타났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국산 열대과일 키운다

기후변화 맞춰 라인업 강화

롯데마트가 기후 변화에 발맞춰, 올봄 국산 열대·아열대 과일을 선보인다. 한반도 기후의 아열대화로 국내 열대·아열대 과일 재배 한계선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롯데마트는 지난 12일 국산 열대·아열대 과일 3종을 출시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기존 수입 과일에 더해 '초신선' 가치를 극대화한 국산 라인업을 보강해 고객들에게 다채로운 과일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취지다.

대표 상품은 전남 신안에서 재배한 '국산 무농약바나나'다. 신안 해풍을 맞고 자란 무농약 인증 원물로 국산 재배의 장점을 살려 장기 운송을 위한 조기 수확 없이 나무에서 90% 이상 익힌 후 수확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갤러리아백화점

웨딩 고객 혜택 강화

프리미엄 혼수 수요 맞춰 경쟁력 확대

갤러리아백화점이 예비 신혼부부 고객을 위한 웨딩 쇼핑 혜택을 확대한다. 갤러리아는 서울 명품관에서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웨딩 페스타'를 진행한다. 참여 브랜드 구매 시 최대 250% 웨딩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며, 30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1월 웨딩페스타 당시 인기가 높았던 예뻐 구매 고객 대상 기프트 증정 행사도 이어간다. 결혼반지 또는 시계 구매 시 웨딩마일리지 적립 고객을 대상으로 테이블웨어 브랜드 '헤리터'의 ▲가야글라스라지 3세트 ▲슈테이블매트+식기 2세트 중 1종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 /신원선 기자

전환기 앞둔 바이오시밀러... 국내 기업들, 글로벌 공략 가속

美 FDA, 규제 완화 조치 발표
산도즈, 바이오시밀러 조직 신설
셀트리온, 차별화된 제형 개발
삼바에피스, 파이프라인 추가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바이오시밀러 전환기'에 접어들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입지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전문 조직을 재편하는 등 시장 환경이 빠르게 바뀌면서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개발과 생물의약품 가격경쟁 및 혁신법(BPCIA) 관련 질의응답 개정안' 초안이 공개됐다. 핵심은 임상시험 축소, 분석 기반 평가 확대다.

특히 바이오시밀러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임상 약동학(PK) 시험의 경우,



국내 연구진이 'K-바이오시밀러'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들은 PK 연구 비용을 최대 50%, 약 2000만 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개발 과정의 유연성도 확대한다. 활용 가능한 비교 제품, 임상 데이터 등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존 요구되는 '바이오시밀러-미국 기준 의약품-해외 비교 의약품' 간 3자 PK 시험은 의무 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적용 가능해진다.

이처럼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들도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

세계 최대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산도즈는 지난 10일(현지 시간) 바이오시밀러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 조직은 바이오시밀러 개발, 제조, 공급을 총괄하는 수직 통합 체계로 운영된다.

산도즈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성

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산도즈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해 33억 달러다. 전체 매출 111억 달러에서 해당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30% 수준으로 커졌다.

업계는 향후 10년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황금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관련 국내 기업들은 '바이오시밀러 공백'을 적극 공략하는 모습이다. 특히 만료를 앞둔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만 3000억 달러 이상으로 집계된다. 다만 이 가운데 약 10%만 바이오시밀러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를 '바이오시밀러 공백'으로 지칭한다.

바이오시밀러 강자인 셀트리온은 차별화된 제형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표 제품인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렘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맵)'의 경우, 정맥주사(IV) 동결건조 제형, 피하주사(SC) 제형에 이어 정맥주사(IV) 액상 제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게 됐다. 인플릭시맵 액상 제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셀트리온만이 보유하고 관련 특허까지 등록한 제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글로벌 대형 품목 바이오시밀러 개발로 시장 선점을 노린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키트루다, 듀피젠트, 트렘피아, 탈츠, 엔허투, 엔티비오, 오크레부스 등 총 7종의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고 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바이오시밀러 중심으로 가치 사슬을 구축했다. 전문의약품 전문기업인 동아에스티는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물도사를 개발해 유럽, 미국 등에서 상업화했고 에스티젠 바이오는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동아에스티는 이물도사 생산 기지다.

국내 제약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환자 치료 접근성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치료 옵션인 만큼,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기업들 역시, 특히 특허 만료에 대비해 고부가가치 제품에 중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며 "국내 기업들도 개발 경험과 생산 역량을 점차 쌓아 온 만큼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HLB그룹, 항암제 핵심 파이프라인 '순항'

CAR-T 치료제 임상 결과 첫 공개
김태한 전 삼바로직스 대표 영입

HLB그룹의 핵심파이프라인이 순항하며 각 계열사가 글로벌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HLB그룹은 오는 4월 17~22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암 학술대회 '미국 암 연구학회 연례회의 2026(AACR 2026)'에서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HLB이노베이션의 미국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는 CAR-T 치료제 후보물질 'SynKIR-110' 미국 임상1상 중간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실제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AR-T 치료제는 환자 유래 면역세포인 T세포에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를 장착시켜 다시 환자 몸 안에 넣는 치료법이다. 베리스모의 CAR-T 치료제는 기존 CAR-T의 한계로 지적돼 온 T세포 탈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

사슬 신호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HLB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표적 항암제 후보물질 '리라푸그라티닙'의 FGFR2 선택성을 기존 범FGFR 저해제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내놓는다.

리라푸그라티닙은 FGFR2 융합·재배열 표적 항암제로,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인 FGFR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암세포 성장, 분화 등과 관련된 신호전달에 관여한다. 글로벌 임상2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담관암 2차 치료제로 신약허가 신청도 완료했다.

이번 추가 분석 결과는 향후 상업화 과정에서 리라푸그라티닙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데 의미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평가받는다.

HLB그룹은 이처럼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한 데 이어 향후 상업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김태한 전(前)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를 바이오 부문 총괄 회장으로 영입했고 최근에는 계열사에서도 전문 인력을 확충했다.

김태한 신임 회장은 간암 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의 미국 도전 전반을 이끌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세 번째 이뤄진 '리보세라닙' 신약허가신청(NDA) 과정에서도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과 적극 소통하는 등 심사준비를 직접 재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리스모 테라퓨틱스의 경우, 세포치료제 전문가 데니스 윌리엄스 박사가 합류해 규제 전략 수립을 본격화하고 있고 동시에 진인혜 베리스모 테라퓨틱스 상무는 학동사육으로 합류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등 원팀을 구축한 상황이다.

HLB그룹 남경숙 바이오전략기획팀 상무는 "검증된 임상·비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글로벌 개발 전략을 정교하게 다듬고 차세대 항암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챗GPT에 '아모레몰' 탑재

업계 최초 AI 기반 뷰티 쇼핑 제공

아모레퍼시픽이 오픈에이아이(OpenAI) 챗GPT(ChatGPT)에서 '아모레몰' 앱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뷰티 업계에서는 최초로 챗GPT를 통해 국내외의 사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뷰티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챗GPT는 지난 2025년 10월 오픈에이아가 공개한 앱으로, 전 세계 9억 명 이상의 챗GPT 사용자는 대화 중 다양한 외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협업으로 챗GPT와 대화하면서 아모레몰 앱으로 연결, 아모레퍼시픽의 다양한 브랜드 제품들을 탐색하고 비교할 수 있다.

특히 피부 유형, 고민, 사용 목적 등

에 적합한 제품을 추천한다. 제품 간 성분·효능·가격 비교도 대화형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아모레퍼시픽이 오랜 기간 축적한 뷰티 데이터, 전문 지식 등을 반영한 설계로 개인 맞춤형 상담 수준의 답변도 받아볼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번 챗GPT 내 앱 출시는 향후 중장기 비전 실현을 위한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 전환 전략의 일환이다.

지난해부터 자사몰 내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인 '아모레챗'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어 올해는 글로벌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한다는 복안이다. 향후에는 챗GPT 앱 기능을 결제, 배송 연동까지 서비스에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철갑상어 콘드로이친으로 관절 지켜요"

팜젠사이언스 '솔루티...' 출시

팜젠사이언스는 관절 관리 제품으로 '솔루티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맥스 1700 MBP(사진)'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철갑상어 유래 콘드로이친 복합물을 일일 섭취량 기준 1700mg의 고함량으로 처방했다. 철갑상어 연골, 상어 연골, 소 연골에서 추출한 3종 콘드로이친을 배합해 영양 공급의 효율을 높였다. 또 건강한 성인의 연골에 다량 존재하는 CS6형 원료를 사용했다.

이와 함께 뼈 형성 촉진에 도움을 주는 유단백 추출물(MBP) 220mg을 함께 담아 관절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조분말, 산화아연, 비타민D3, 저분자 피쉬콜라겐, 보스웰리아 추출분말 등 관절 건강을 극대화할



수 있는 8종의 부원료도 더했다.

팜젠사이언스 관계자는 "복잡한 섭취 방식 대신 하루 2정만으로 간편하게 고함량 관절 영양을 보충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의성도 고려했다"며 "60년 제약 노하우를 기반으로 성분 설계부터 품질 관리까지 철저히 진행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바노글리펠' 글로벌 특허 48건 등록

메타비아 "지식재산 경쟁력 확보"

동아에스티 관계사 메타비아는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치료제 후보물질 '바노글리펠'의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에서 총 48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해, 바노글리펠은 최소 2035년까지 특허 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특허 기간이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바노글리펠은 G단백질 결합 수용체 119작용제 기전을 갖춘 계열 내 최초의 경구용 합성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적응증은 대사 이상 관련 지방간염(MASH), 제2형 당뇨병 등이다. 동물실험에서 지질 대사, 혈당 등을 조절하며 간경화, 염증, 섬유화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MASH 추정 환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 2a상에서는 간과 대사 기능을 동시에 개선하는 것이 입증됐다.

메타비아는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D A-1726' 특허도 지속 확보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DA-1726에 대해 총 39건의 특허를 등록 및 출원 중이다. 오는 2041년까지 D A-1726의 글로벌 지식재산권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메타비아 김형현 대표는 "바노글리펠의 장기적 가치 극대화를 위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특허 포트폴리오는 바노글리펠이 간질환과 대사질환 영역에서 갖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대한민국 가요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대전역 앞 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한민국 1세대 원로가수 리싸이틀"이
2026년 3월 31일(화요일)부터 매일 원로스타들의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1세대 원조스타 리싸이틀



고향 아줌마
이정표 없는 거리
고향이 좋아

매주 금요일
김상진



대머리 총각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

매주 월요일
김상희



나는 행복합니다
이거야 정말
장미빛 스카프

매주 화요일 윤항기



철없는 아내
청춘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

매주 목요일
차도균



아버지의 대를 잇는 가수
차승민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매주 수요일
이명주 / 이호



리싸이틀 사회
탤런트 이경영

마술공연



웃음콘서트

한글 혀 진동
웃음 건강운동

- 웃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 웃음치유의 효과
- 일상 속 웃음 실천
- 웃음치료사 되기



한글 혀 진동 웃음
건강운동 창시자
황성현 원장

여행사 및 단체관람
문의 1544-3235



삼성화재-지에이코리아, 금융소비자 보호 MOU
 삼성화재는 법인보험대리점(GA) 지에이코리아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험사와 GA간 협력을 통해 보험 모집과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동주 삼성화재 마케팅 본부 부사장(왼쪽 두번째), 변광식 지에이코리아 사장(왼쪽 세번째) 및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성화재



지씨씨엘-오송의료산업진흥재단, 임상 연구 '맞손'
 지씨씨엘이 지난 12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임상 연구 및 제약산업 발전의 기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관구 지씨씨엘 대표(오른쪽)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혜정 신약개발지원센터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씨씨엘



풀무원재단, '지구시민 교육' 수강생 50만명 돌파
 풀무원의 기업재단인 풀무원재단은 건강한 먹거리, 건강한 환경,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해 알리는 '지구시민 교육'의 누적 수강생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15일 밝혔다. 어린이 바른먹거리 교육에서 강사와 아이가 함께 요리 실습을 해보고 있다. /풀무원재단



KB손해보험, 'KB 프로보노 봉사단' 3기 출범
 KB손해보험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KB손해보험 본사에서 'KB 프로보노 봉사단' 3기를 공식 출범하고 단원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3기 단원들은 올 해 동안 전국의 금융 취약계층을 찾아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건전한 금융생활 습관과 태도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유한양행, 중처법 준수 인증

유한양행이 법무법인 '대륙아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을 획득하며 우수한 수준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부여하고 있는 법적 의무사항을 기업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안전 전문가가 정밀 진단해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SCC 인증은 유한양행이 보유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문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정하 기자 mlee236@

현대차그룹, '어 세이퍼 웨이 홈' 3000만부 돌파

시청자들 로봇기술 놀라움 표해 "더 많은 소방관의 생명 지켜주길"

현대자동차그룹의 안전 최우선 철학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담은 무인 소방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소방청과 함께 개발한 무인소방로봇 기술을 소개하는 영상 '어 세이퍼 웨이 홈'이 공개 12일 만인 15일 현재 3000만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현대차그룹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은 위험을 감수하며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조명해 준 뒤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고위험 현장에 대신 투입되는 무인소방로봇의 모습을 담았다.

현재 영상에는 4만5000개 이상의 '좋아요'와 841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현대차그룹은 전했다. 조회수 3000만 뷰 중 영어 영상 조회수는 절반이 넘는 1721만부에 달한다. 전체 3000만 뷰의 시청 국가는 한국 43%, 미국



무인소방로봇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119 구조본부 전준영 주임(왼쪽부터), 황정민 반장, 임팔순 구조대장. /현대차그룹

12%, 이탈리아 5%, 스페인 4.4%, 프랑스 4%, 영국 2% 등의 순이었다. 시청자들은 인간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는 피지컬 AI 등 로봇 기술에 대한 놀라움을 표하며 소방관에 대해 감사함을 표했다. 국내외에서 "이런 기술이 더 많은 소방관의 생명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현대차그룹에 감사합니다", "현대차의 기술력이 소방관들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혁신이 발휘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입니다", "로봇 기술: 우리의 영웅들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 등의 댓글이 잇따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복 입은 영웅'들에 대한 지속적인 CSR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기아, DK 권재혁 선수에 'PV5 WAV' 전달

휠체어 탑승 승객 이동 특화 모델

기아는 e스포츠 파트너십 디플러스 기아(DK) 소속 권재혁 선수에게 휠체어 탑승 승객 이동에 특화된 '더기아 PV5 WAV'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2007년생인 권재혁 선수는 DK 챌린저스 소속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 선수다. 차량은 선수의 소속 기간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되며, 연습장 출퇴근과 원정 이동 등에 이용될 계획이다.

권 선수는 "'무한대의 가능성'이라는 기아의 철학이 담긴 PV5 WAV를 받게 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며 "e스포츠 선수로서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아 엔플러그드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PV5 WAV' 전달식에서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왼쪽), 권재혁 선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권 선수에게 제공된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WAV는 휠체어 이용 승객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국내 전기차 최초로 측면 출입 방식이 적용됐다. 개구폭 775mm의 측면 슬라이딩 도어와 '수동식 인플로어 2단 슬로프'를 통해 인도에서 곧바로 휠체어 승객의 출입이 가능하게 했다. 수동식 인플로어 2단 슬로프는 탑승 환경에 따라 1.2단으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한국산업표준(KS) 권장 사양의 수동식·전동식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유효 폭 740mm를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인사

- ◆**고용노동부** ◇국장급 승진△경기지부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여성철
- ◆**중소벤처기업부**(승진) ◇과장급 △특구운영과장 박보근

부음

- ▲**조경제씨 별세**,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씨 부친상=15일, 대전 삼성장례식장 VIP1호실, 발인 17일. 042-522-4494.
- ▲**최정희씨 별세**, 맹정호(전 서산시장)씨 모친상=15일, 서산 우리요양병원장례식장 1호실 목련실, 발인 17일. 041-664-4449
- ▲**양해봉씨 별세**, 양수근(담양경찰서장)씨 부친상=15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장공실, 발인 17일. 062-250-4455
- ▲**안경자씨 별세**, 최승원·송진(CBS 마케팅본부장)씨 모친상=14일, 이대서울병원장례식장 9호실, 발인 17일. 02-1522-7000.

현대건설,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연구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 기반 강화

현대건설이 해상풍력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충청남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델 개발 및 AI P인증 획득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은 특화 강재와 콘크리트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부유체(Floater)를 개발하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하이브리드 부유체 설계와 모듈러 제작·급속 시공 기술을 개발하고, 현대제철은 해상풍력용 특화 강재 개발과 성능 검증을 수행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현대건설 김재영 기술연구원장(왼쪽)과 현대제철 정유동 연구개발본부장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독자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이번 협력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의 핵심 기술인 부유체 설계 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해상풍력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한국타이어 TGL '더블헤더' 준결승

한국타이어는 미국 시물레이션 골프 리그 '투모로우 골프 리그(이하 TGL)' 2026 시즌 준결승전 경기가 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소피 센터(SoFi Center)'에서 한 날에 두 경기가 열리는 '더블헤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준결승전은 정규리그 상위 4개팀 중 2위와 3위팀, 1위와 4위팀이 각각 연이어 경기를 치른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정규리그 3위 '에틀랜타 드라이브 GC'와 2위 '로스엔젤레스 골프 클럽'이 두 번째 경기는 정규리그 1위팀 '보스턴 커먼 골프'와 4위팀 '주피터 링스'가 맞붙는다. 준결승에서 이긴 2개 팀은 오는 23일부터 양일간 3전 2선승 방식으로 결승전을 치른다. /양성운 기자

KT지니뮤직 장병 음악감상 상품 할인

현역 장병이 전역할 때까지 약 30% 저렴한 가격으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이 음악 플랫폼 '지니'에서 진행된다.

KT지니뮤직은 신한카드와 제휴를 맺고 신한나라사랑카드를 보유한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지니의 '스마트 음악감상' 상품을 정가 대비 30% 할인된 월 5698원에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병이 신한나라사랑카드로 지니 서비스를 결제하면 모바일 기기에서 무제한 음악 감상이 가능한 '스마트 음악감상' 상품(정가 8140원)을 군복무 기간 동안 월 5698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복무 기간 동안 적용되며, 군복무 기간은 공군 기준 최대 21개월이다. /김서현 기자 seoh@

넥슨 '코믹월드' 메인 스폰

'아주르 프로밀리아' 버스 운영

넥슨이 신작 '아주르 프로밀리아' 서비스를 앞두고 팬들과의 첫 오프라인 만남을 가졌다.

넥슨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믹월드 330 일산'에 메인 스폰서로 참가해 '아주르 프로밀리아' 버스를 운영했다고 15일 밝혔다. 게임사가 서브컬처 동인 행사인 코믹월드의 메인 스폰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주르 프로밀리아'는 '백림항로'를 흥행시킨 중국 만주계게임즈가 개발 중인 판타지 월드 RPG다. 이용자는 신비한 생물 '키보'와 함께 전투와 탐험, 건설, 농사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넥슨은 해당 작품의 국내 퍼블리싱을 맡았다. 행사장에 마련된 버스에서는 약 300석 규모의 휴게 공간과 함께 세계관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운영됐다. /최빛나 기자 vitna@



COME & CONNECT

2026년 4월 13일 -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시찰단 모집

- 만데스만의 그린스틸을 비롯한 AI·로봇 연계한 생산관리 회사 탐방
- AI 응용 자동 용접·Pipe 제조사·용접 메쉬 철근가공, 전기강판, 클래드 파이프
- 탄소국경제도(CBAM)·유럽 관세정책을 꿰뚫어 보는 최신 이슈 경청(국제 포럼/세미나)
- 철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



참가일정

1. 참가신청 및 접수기간

2026년 2월 2일(월) ~ 3월 6일(금)

2. 참가비용

5,990,000원

- 항공료, 숙박료, 교통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항공은 이코노미 클래스 (비즈니스 변경시 에스앤마일즈 문의)
- 숙박은 4성급 호텔 2인1실 기준 (호텔 싱글 차지 610,000원)

3. 신청방법

- 2026년 3월 6일(금)까지 당사 E-mail : smkang@snmiles.com으로 여권 사본 및 핸드폰 번호 송부 요망
-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

주요일정

날짜	도시	교통편	시간	일정	식사
DAY 1 4월 12일 일요일	인천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KE 945 전용차량	8:00 10:50	인천국제공항 집결 및 개별 탑승수속 인천 국제공항 ICN 출발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FRA 도착 한국인 가이드와 미팅하여 뒤셀도르프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후 휴식 HOTEL : Ramada By Wyndham Essen 혹은 동급	중 : 기내식 석 : 현지식
DAY 2 4월 13일 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DEUTSCHE MESSE-전시회 설명)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3 4월 14일 화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전시장으로 이동 Wire&Tube 2026 전시회 참관 석식 후 호텔 복귀 및 휴식	*티센그룹 머티리얼 *SMS그룹, Swiss Steel그룹 1. 만네스만 그린스틸 2. ECO-Metal 프로그램을 통한 친환경 제조혁신기업 3. EVG, Butting 그룹 조 : 호텔식 중 : 매 식 석 : 현지식
DAY 4 4월 15일 수요일	뒤셀도르프	전용차량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현지식
DAY 5 4월 16일 목요일	뒤셀도르프 프랑크푸르트		9:00	호텔 조식 후 업체견학 현지업체 견학 : FRAUNHOFER 연구소(섭외중), CD.W EJP, Bilstein trade KG(섭외중), 막스플랑크연구소(섭외중) 등 프랑크푸르트로 이동 (약 2시간 45분 소요) 석식 후 호텔 체크인 및 휴식 HOTEL : Holiday Inn Frankfurt Airport-Neu-Isenburg 혹은 동급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한 식
DAY 6 4월 17일 금요일	프랑크푸르트	KE 946		호텔 조식 후 프랑크푸르트 문화 탐방 - 프랑크푸르트 구시가의 중심 광장 뤼머광장 - 황제의 대관식이 치뤄졌던 고딕 양식의 성당 카이저 돔 - 3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 예술작품을 볼 수 있는 현대 미술관 - 독일 국민 의회의 회의 장소로 사용된 파울교회 -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변화한 자일거리 - 뤼머광장과 박물관 지구를 잇는 철조 소재의 아이젤너 다리 - 신성로마제국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던 대성당 공항 이동, 개별 탑승 수속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 (기내 숙박)	조 : 호텔식 중 : 현지식 석 : 자유식
DAY 7 4월 18일 토요일	인천		17:10	인천 국제공항 ICN 도착	조 : 기내식 중 : 기내식

※ 상기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 및 현지업체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잘못 서면 큰일 나는 보증계약



김대혁 변호사의
슬기로운 법 생활

가장 보증 잘못서 집이 망해 가족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경우가 있다.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끔 보이는 장면이다. 요즘은 보증의 의미와 그 위험성에 대해 널리 인식돼 보증 잘못서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여전히 보증은 신중히 해야 할 법률행위이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주된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린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동일하게 돈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민법 제428조의2 제1항), 여기서 기명날인이란 이미 인쇄된 이름이나 명판으로 날인된 이름(기명) 옆에 도장을 찍는 것(날인)이고, 서명은 본인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자필로 기재했다면 그것으로 보증의 의사는 표시된 것이고, 그 옆에 별도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

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끔 별도 도장이나 사인을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름을 자필로 쓰는 행위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자필로 이름을 쓰는 행위는 '서면의 내용을 모두 승인한다'는 행위이므로 매우 신중해야 하며, 그 내용을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고 해야 한다. 만약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을 할 경우 숨겨진 보증조항을 뒤늦게 발견하더라도 이는 반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보증의사표시로서의 서명은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의미하며, 타인이 보증인의 이름을 대신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다만, 기명날인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대행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보증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 '보증'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것은 아니다. 즉, 단순히 '차용증'이라고 기재돼 있는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에도 이는 보증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자신의 서명이 보증의 의사로 해석될 수 있지는 않은지 유의해야 한다.

보증채무 중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보증은 연대보증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연대보증의 경우 검색, 최고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원 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통상의 보증채무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고(민법 제437조), 그리고 보증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대로 인해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않았다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민 438조).

보증은 주채무자의 신용을 강화해 본계약의 성립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보증인에게 주채무의 신용위험을 일부 전가시키는 효과도 있다. 채권자, 주채무자, 보증인 각 당사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보증제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겠지만, 보증인이 보증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증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보증을 서야 예기치 못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게임사의 'AI 선언', 대표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기지수첩
최빛나 (IT부)

최근 게임업계의 메시지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 인공지능(AI)이다. 신작 발표나 기술 소개 자리에서 AI가 언급되는 일은 이제 낯설지 않다. 게임 개발 자동화와 이용자 행동 분석, 콘텐츠 제작 효율화 등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AI 자체가 새로운 화두는 아니다. IT 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술 혁신의 핵심 키워드로 꾸준히 언급돼 왔다. 다만 최근 들어 게임업계가 이를 기업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끌어안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분명한 변화다.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게임 개발 방식과 콘텐츠 생산 구조를 바꾸

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주목할 부분은 '내용'만이 아니다. '누가 말하느냐'도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게임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역할이 주로 개발 조직에 있었다. 개발 총괄이나 디렉터가 신작의 콘셉트와 시스템을 설명하고 기술 변화 역시 실무 조직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AI 전략과 기술 투자 방향, 게임 개발 방식 변화 같은 메시지를 최고경영진이 직접 설명하는 장면이 늘고 있다. 기업의 장기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대표들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게임 산업을 둘러싼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다. 모바일 시장 성장세는 둔화했고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개발 비용은 크게 늘었고 신작 흥행의 불확

실성도 커졌다. 게임사 입장에서 개발 효율을 높이고 콘텐츠 제작 구조를 바꿀 새로운 수단이 필요해졌고 그 해법 가운데 하나로 AI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주요 게임사들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자동화와 이용자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효율화 등을 잇달아 강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게임 산업의 방향을 설명하는 목소리가 개발 조직에서 경영진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술 변화가 기업 전략과 연결되면서 최고경영진이 직접 메시지를 내고 시장과 이용자를 설득하는 모습도 점점 늘고 있다.

물론 AI가 게임 산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분명한 변화가 있다. 게임은 개발자가 만들지만, 산업의 방향은 이제 대표가 말하기 시작했다.

/vitna@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6일 (음 1월 28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성실히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60년생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72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84년생 현재의 성공에 자만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49년생 인간관계를 한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1년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세요. 73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85년생 아무런 이득이 없는 하루입니다.



50년생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62년생 의외의 일에서 운이 따릅니다. 74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합니다. 86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집니다.



51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63년생 도와주는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75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87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52년생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집중하세요. 64년생 동료와 같이 하는 일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76년생 모든 일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88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53년생 조금만 참고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65년생 주변에 친절하게 대한다면 쉽게 일이 풀립니다. 77년생 아랫 사람에게 신경을 써주세요. 89년생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세요.



54년생 조심스럽고 신중한 일처리가 필요합니다. 66년생 뒷사람중에 한 분이 위독합니다. 78년생 매사에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90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으세요.



55년생 지나친 모험은 피하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67년생 다가올 상황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9년생 앞으로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91년생 욕심을 부리면 독이 됩니다.



56년생 음식을 조심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능력 밖의 일을 추진 중입니다. 80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세요. 92년생 불행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하세요.



57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습니다. 69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81년생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93년생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반성하십시오.



58년생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는데는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70년생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82년생 침착하게 기회를 노리면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94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59년생 귀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71년생 조력자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세요. 83년생 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입니다. 95년생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가지 마세요.



김상회의四季 동물의 권리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말하지 않는다. 함께 산다고 말한다. 반려라는 말에는 이미 함께 산다는 의미가 있다. 반려라는 짝이 나뉘고 인생을 함께 걷는 존재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반려라는 말에는 보이지 않는 약속도 담겨 있다.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것이다. 그러나 사회 곳곳에서는 여전히 반려동물 학대에 관한 뉴스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반려동물은 말을 하지 못할 뿐 사람과 똑같이 감정을 느끼는 존재다. 아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기쁨을 경험한다. 그런데 짖는다고 때리고, 실수했다고 굶기고, 병이 들었다고 내다 버린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반려동물 학대가 너무 쉽게 벌어지고 있다. 인간이 인간처럼 살 권리가 있다면, 동물도 동물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힘든 하루를 마감하고 집에 왔을 때 반겨주는 강아지의 눈망울이나, 가만히 다가가 몸을 비비는 고양이 온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절감한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킨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정서적 안정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학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인성을 파괴하는 일과 같다. 동물 학대는 법으로 처벌받는 범죄가 되었다. 그러나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처벌 이전에 반려동물을 학대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한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약속과 같다. 귀여울 때만 예뻐하고, 귀찮거나 화가 날 때 함부로 학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반려동물 학대는 지금 즉시 멈춰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1			7			
	7	3			4	
2		1	5		9	
	6	7	1	4	5	
	3	2	8	6	1	
	6		5	4		3
9				7	5	
		5				4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월드피자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2	7	8	9	6	9	2	1
1	9	2	7	8	2	7	6
8	2	6	7	1	9	8	9
6	2	1	9	9	8	2	7
8	8	9	6	2	7	1	2
2	9	7	1	8	2	9	6
9	6	8	9	2	1	7	8
7	1	2	8	6	8	2	9
9	8	2	7	9	6	1	8

2	6	9	7	8	1	9	8	2
2	8	9	8	9	2	7	1	6
8	1	7	9	2	6	2	8	9
9	9	8	2	8	7	1	6	2
7	2	6	1	9	8	9	8	8
1	8	2	6	9	2	9	7	7
9	7	8	1	2	8	6	2	9
8	2	2	6	9	8	9	7	1
6	9	1	9	7	2	8	2	8

유아 학원교습비 초과징수 관리 강화... 진학상담 50% 확대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경감 대책 유아대상 학원 몰린 지역 집중점검 저소득층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유아대상 학원 밀집 지역 현장 점검을 늘리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해 사교육 부담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서울의 사교육비 부담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서울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3000원, 참여율은 82.6%로 전국



서울시교육청 용산 신청사.

최고 수준이었다. 소득별 사교육비도 월평균 가구소득 1000만원 이상은 72만 8000원, 300만원 미만은 19만2000원으로 3.8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과열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장 관리를 더 촘촘히 하기로 했다.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규칙과 벌점 체계를 정비하고, 유아 대상 학원이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

에 나설 계획이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과도한 입시 경쟁 조장 광고, 문항 거래 등 불법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강화하는 방안도 교육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과태료는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최소 2~3배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학원 폐원 1개월 전 사전 통보와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공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자율수강권과 학습지원을 늘리고,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제공, AI·디지털 교육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주요 사업 실적을 사교육비 단가로 환산하면 공교육 예산액이 사교육비 추정 소요액의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고, 관련 사업을 더 넓혀 사교육비 부담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고액 입시컨설팅 수요를 낮추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입시컨설팅은 시간당 30만원 수준이며, 90분 90만원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200명에서 300명으로 50% 늘리고, 학생 맞춤형 1대1 상담을 확대한다. 센(SEN)진학 나침판과 교육청 SNS를 통한 정보 제공도 월 2회로 정례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학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해 구조적·인 개선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캠퍼스타운, 5년내 딥테크기업 1728곳 육성

서울시, AI중심 창업 생태계 고도화 대학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 강화

서울시가 캠퍼스타운 사업을 AI 중심 창업 생태계로 고도화한다. 올해 창업기업 730개를 선발하고 2030년까지 AI·딥테크 분야 창업기업 1728개 육성을 목표로 대학 연계형 기술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해 운영 성과 평가에서는 한양대, 경희대, 서울대가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며 캠퍼스타운의 성장 가능성도 확인됐다.

◆양적 발굴에서 '유망기업 집중 육성'으로 전환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의 '양적 중심 예비·초기 창업기업 발굴' 방식에서 벗어나 유망 기업 집중 육성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대학과 연계한 AI 창업기업 육성, RISE 사업과의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서울캠퍼스타운은 2017년부터 서울시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 창업기업을



서울대와 아이비스의 검수 자동차 솔루션.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대학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올해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13개 대학이 참여해 AI, 바이오, 디지털콘텐츠, 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730개 창업기업을 선발했다.

◆대학별 특성화 전략... AI·RISE·글로벌 연계 강화

서울시는 올해부터 이 같은 성과를 토대로 대학별 특성화 분야를 더 분명히 하고 중복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

과제를 표준화·고도화할 방침이다.

우선 대학별 핵심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 고려대는 학점 연계 프로그램인 '캠퍼스타운형 마이크로디그리'를 통해 학사 단계부터 창업 역량을 키우고, 국민대는 TIPS 운영사인 국민대기술지주와 연계한 '투자와 TIPS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으로 아키유니콘 발굴에 나선다.

AI 창업 육성 분야에서는 숭실대가 'AI 기반 창업기업 및 인력 발굴·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초·중·고급 전주기 교육을 추진하고, 동국대는 'AI+메타버스 기반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AI 기반 가상전시관 제작과 아카이빙 플랫폼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RISE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한양대는 '스타트업 오픈노베이션'을 통해 대·중견기업 리버스피칭, 1대1 비공개 상담, 네트워킹을 연계한 실전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현진 기자

평택시, '2040 도시기본계획' 최종 승인

100만 특례시 도약 기반 마련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40년까지의 미래상과 장기 발전 방향을 담은 '2040 평택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100만 특례시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으로 평택시는 2040년 계획 인구 105만4천 명을 확정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7번째로 100만 이상 계획인구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급속한 도시 성장에 대응하고 100만 규모 특례시에 걸맞은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됐다. 반도체, 수소, 항만·물류 등 핵심 산업 기반을 토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체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방향을 함께 반영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교통축과 도시 기능 연계성을 높여 산업 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간 구조도 포함됐다.

또한 동부와 서부, 원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도 핵심 과제로 반영됐다. 동부 생활권은 첨단산업, 연구개발, 국제교류 기능을 중심으로, 서부 생활권은 평택항 연계 물류, 수소산업, 해양관광 중심으로 육성하며 각 권역 특성을 살리면서 상호 연계되는 발전체계를 구축해 평택 전역의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사회 기반시설(SOC) 확충도 포함됐다.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생활권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주요 거점 연계 체계를 계획에 반영해 시민 이동 편의와 도시 접근성을 높였다.

/평택(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파주 '캠프하우스', 도시숲으로 탈바꿈

내년 착공 후 2028년 준공 목표

파주시가 캠프하우스 부지를 시민을 위한 녹색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캠프하우스 도시숲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캠프하우스 도시숲 조성사업'은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총 3단계 사업 중 2단계에

해당한다. 단계별 사업을 통해 과거 군사시설이었던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원·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표다.

2단계 사업인 '도시숲 조성사업'은 '접경지역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약 50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약 3만 1000㎡ 규모로 조성되며, 관리등과 주

차장을 비롯해 자연과 어우러진 야영장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과거 미군이 주둔했던 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찾는 휴식과 여가의 공간으로 전환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면서도 새로운 도시 자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해돋이 / 06:42 | 해질 / 18:40

오늘의 날씨

3월 16일 (월)
음력 : 1월 28일

수도권 날씨
1 ~ 13°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3/13

동두천 -2/14

파주 -3/13

가평 -3/14

서울 1/13

양평 -1/14

인천 1/11

수원 1/12

용인 1/12

평택 -2/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처칠 대신 야생동물”...영국, 차기 지폐 도안 변경 추진
▲이란, 푸자이라 공격·UAE 위협...美 참전요구에 호르무즈 확전 조짐

/사진 뉴시스

▲곰속 속 가족 지키러 귀국한 이란 코치...중국서 '응원 물결'
▲“7년 만의 성조기”...베네수엘라 미 대사관 재개

▲레오 14세 교황, 사도궁 교황 관저 입주...10개월 보수 공사 마무리
▲서방으로 번진 중동 전쟁 불길...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학교 “의도된 폭발”



유통업계
정기주총 시즌 돌입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
L1



Life

전환기 앞둔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공략 가속
L2



기술·신뢰로 완성한 '컴퓨터 병원'... 디지털 생활 지킨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컴퓨터 문제해결 플랫폼 '컴닥터' 강희탁 대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모두가 잠든 새벽 누군가는 오늘 배달할 신문을 챙기고 우유 가방을 땀. 어려서 시작한 배달 아르바이트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계속됐다. 군 복무와 직장생활을 거치면서도 밤낮없이 일하며 20대 후반에 접어든 가난했던 청년은 자본금 5000만원으로 창업했다. 당시 회사 이름은 컴퓨터24시였다. 언제든 어디든 고객이 찾는다면 방문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낡은 시티백 오토바이 앞뒤에 커다란 CRT 모니터와 본체를 꽂고 서울 시내를 누비던 이 청년이 간직한 것은 '고객의 절실함'을 해결해 주겠다는 진심이었다. 현재는 1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전국 500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강희탁 컴닥터 대표는 여전히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새벽을 열고 있다.

◆'컴퓨터 주치의'가 된 배달의 달인

컴닥터는 컴퓨터 방문 수리 및 IT 문제 해결 서비스 플랫폼이다. 전문 기술자를 전국에 구축해 고객이 요청하면 가장 가까운 기술자가 신속하게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를 갖췄다. 고객 중심 서비스라는 경영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강희탁 대표는 "컴퓨터 문제는 대부분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고객 접수와 동시에 가장 가까운 엔지니어를 자동 배정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닥터의 핵심 경쟁력은 표준화된 기술 매뉴얼과 운영 시스템에 있다. 그는 "개인 기술자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 기술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문제 해결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며 서비스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컴닥터는 전국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 20년간 직접 개발하고 지속 발전시킨 사내 전산시스템(ERP), 업무 폰, 앱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 소통하고 있다. 또 모든 수리 과정을 이력화해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수리 전과 수리 후 사진을 6컷씩 저장해 투명성을 확보하며 소비자 신뢰를 높인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창업가

강 대표는 용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원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수학했다. 2004년에 창업해 23년째 성장하고 있다. 그는 "컴퓨터와 IT 기술에 관심이 많았고 관련



강희탁 컴닥터 대표가 메트로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강성진 기자 ksji@



청년시절, 새벽 배달·직장생활 거쳐 20대 후반 창업... 컴퓨터 수리 나서 현재 500개 지점 운영 플랫폼 성장

표준화 기술 매뉴얼·시스템 '장점' 전국 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 제공해 투명한 수리과정으로 고객 신뢰↑

AI시대... 현장 전문가 역할 중요해 단순 수리에서 IT문제 해결로 발전 발전이 큰 성과로... 지속성장 앞장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다"며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컴퓨터는 생활 필수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는 많지 않았다"고 창업을 계획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이어 "컴퓨터 문제를 병원처럼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창업으로 이어졌고 오토바이 배달로 늘어난 기량으로 현장 서비스를 실현했다"며 "가령 오래된 기기에서 발생하는 냉납(납땀 부위가 떨어지는 현상)은 이동 중 흔들림만으로도 영향을 받는다. 수리점에서는 잘 작동했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 안 켜지기도 한다. 현장 응대를 원칙으로 하는 이유다. 수리 후 고객이 바로 컴퓨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덧붙였다.

◆AI 시대, 오히려 더 중요해진 '사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서 컴퓨터 산업도 크게 변하고 있다. 강 대표는 컴퓨터와 IT 환경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고장 자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상당한 정보를 학습해 사용자를 돕고 있고, IT 업체들은 원격 지원 기술, 자동 업데이트 등을 고도화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양상은 훨씬 까다로워졌다. 수많은 장비들의 신기능 및 기술 경쟁, 네트워크 오류, 해킹, 랜섬웨어, 데이터 복구 같은 문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을 만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현장 전문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인공지능이 지치지 않고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복합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라고 전망한다.

컴닥터 역시 단순 수리업에서 IT 문제

해결 서비스업으로 발전해 보다 정교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내부 상담실과 외부 기술자가 협업해 다양한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오류 유형, 해결 방법, 장비 환경 등에 대한 매뉴얼을 지속 개선해 왔다. 인공지능도 적극 활용해 자동화 가능한 부분에 도입하고 있다.

특히 '보안'은 중요한 과제다. 컴닥터는 개인과 기업의 IT 환경을 보호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확보다.

강 대표는 "기술 서비스 산업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신뢰, 기술자와의 신뢰,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다음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고객 수요와 IT 산업에 발맞춘 서비스 방식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컴닥터는 컴퓨터를 고치고, 고객의 디지털 생활을 지켜주는 서비스로 남는 것이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행복의 다른 이름, '성장'

컴닥터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 '슈카'는 산스크리트어이며, 그 뜻은 행복이다. 또 창업 후 20년 넘게 성장한 비결이기도 하다.

강 대표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돈이나 규모만으로 행복이 지속되지는 않는다"며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성장'이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성장은 복리처럼 작동한다. 작은 발전이 쌓이면 시간이 흐를수록 큰 성과로 이어진다"며 "컴닥터 비전도 거창한 목표보다 '성장'이라는 두 글자에 있고 회사와 직원, 고객이 함께 성장할 때 지속적인 행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최고 156km' 한화 문동주, 시범경기 3이닝 무실점 /사진 뉴스스
▲'손흥민 71분' LAFC, '정상빈 교체' 세인트루이스 꺾고 4연승

▲테니스 1위 알카라스, 파리바오폰 4강 탈락...시즌 첫째
▲'3연패 보인다' 당구 여제 김가영, 6년 연속 월드챔피언십 진출

▲유럽파 이영준, 6개월 만에 골 맛...그라스호퍼는 역전패
▲여자 하키, 오스트리아전 패배...월드컵 예선 대회 '8위'